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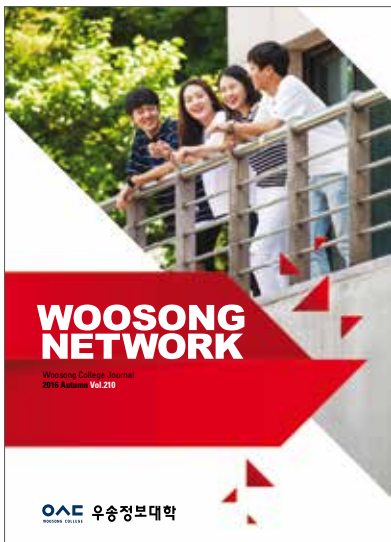
WOOSONG NETWORK

Woosong College Journal
2016 Autumn Vol.210



WOOSONG NETWORK

Woosong College Journal
2016 Autumn Vol.210



발행처 우송정보대학 학보사
주 소 대전광역시 동구 동대전로 171
발행인 정 상 직
주 간 김 주 형
발행일 2016년 10월

우송정보대학 "WOOSONG NETWORK"에 게재할 원고를 수시 모집합니다.

- 대 상 : 재학생, 동문, 교직원
- 모집분야 : 학과 행사 / 동아리 활동 / 취업, 진학, 시험합격 등 체험수기 / 연수 및 여행기
- 접 수 : hakbosa@wsi.ac.kr (042-629-6843)

CONTENS

WOOSONG NEWS | 우송뉴스

- 04 조리부서관과, 제 5회 조리부서관 발대식 거행



- 05 언어재활과, 제 3회 언어재활사 선서식 시행
간호과, 제 6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개최
06 외식조리과, 제 15회 캡스톤디자인 졸업작품 전시회
글로벌실용음악과, 제 22회 명장경진대회 개최
07 영상콘텐츠전공 · 뷰티디자인학부,
중국 가호그룹 전문가교육 실시



- 08 글로벌실용음악과, '실용음악 페스티벌' 본선 진출
외식조리과, '전문대학 한식드림팀' 선정!



- 09 2016학년도 유학생 졸업식 실시
2016학년도 유학생 입학식 실시
호텔관광과, 동문들이 이루어 낸 결실
10 밥 무래! 배고프다 아이가! 총학생회 깜짝 이벤트
또래상담자 수료식
11 총학생회 주관 풋살대회 개최
장애학생 도우미 교육 시행 및 간담회

WOOSONG FOCUS | 우송포커스

- 12 입학에서 입사까지! 2017년 신설과를 소개합니다!



- 14 더불어 함께하는 학교를 위한 장애학생지원센터
16 나의 취업 서포터즈! 취업지원센터
18 글로벌 명장의 첫 걸음, 우송어학센터



- 20 우송만의 신입사원 양성 프로젝트! 주문식 교육과정



- 21 CEO를 향한 첫 번째 발돋움, 벤처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WOOSONG LIFE | 우송라이프

- 22 우리가 만드는 우정의 문화! 우정문화제, Attraction!
24 우송체육대회, 88올림픽 열기보다 뜨거웠다!
26 대전, 어디까지 가봤니?
28 나도 셰프다! 손쉽게 만드는 이태리 요리
30 수업 10분 전, 나를 도와줘!
31 증명사진을 위한 3D 메이크업!
32 우송 맛집 지도

WOOSONG PEOPLE | 우송인

- 34 우송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배움!
외식조리과 대만 연수기
35 애완동물학부 일본 연수기
36 글로벌리더의 한 발짝! 홍콩 탐방기



- 38 뷰티디자인학부, 영국 유학을 다녀오다!
국제요리(제과)경연대회를 휩쓸다!
40 철로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랑스러운 우송인!
김민수 기관사
42 우리의 내일을 책임지는, 라온 하제!
44 학보사의 소중한 이야기

WOOSONG PRESS KIT | 우송보도자료

- 45 '한국대표 명장' 양성하는 명문대학 성장
우송정보대학, '실무경비' 가장 빨리 한국대표 명장 키운다
우송정보대학, 중국인 유학생 입학식 실시
우송정보대학, 일본 오사카산업대학교와 교육협약 체결
46 우송정보대학, 벤처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전문대 한식경연 우송정보대 · 대림대 대상 수상
천안업성고등학교와 자매결연 협약 체결
대전동산고등학교와 자매결연 협약 체결
신탄진중학교 · 대전이문고등학교와 자매결연 협약 체결
47 우송정보대학, 2016학년도 외국인유학생 졸업식 실시
우송정보대학 간호과 제 6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우송정보대학, '일학습병행제 협약기업 간담회' 개최
우송정보대학, '일학습병행제' 교육훈련
듀얼공동훈련센터 개소

WOOSONG NEWS

NEWS 1

조리부사관과, 제 5회 조리부사관 발대식 거행

지난 4월 28일 우송타워 4층 강당에서 학생들의 자긍심과 학업동기 향상을 위한 제 5회 조리부사관과 발대식이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에는 우송정보대학 정상직 총장과 이병빈 병참교육단장, 그리고 군 간부급의 인사들이 참여해 자리를 빛냈다.



김석주 학과장은 “학생들이 현장 중심의 조리능력과 식품안전실무능력을 겸비한 군 급양관리 전문가로서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성장할 것을 다짐하는 자리다.”라고 밝혔으며, 군 간부로서의 자질향상과 성공적인 학업성취를 위한 결의를 다지기 바라며 학생들에게 격장을 수여하였다.

정상직 총장은 “꿈과 함께 평생을 공부하는 자세,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자세 그리고 대한민국에 투철한 국가관과 함께 우리학교의 자랑스러운 부사관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병참교육단장 이병빈 장군은 “군인의 길을 걷고 있는 한사람으로서 자랑스러운 부사관이 되기 위한 여러분의 소중한 선택과 도전에 진심 어린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며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 흘린 땀방울은 대한민국의 무궁한 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이며 조리부사관과 재학생 여러분의 앞날에 무한한 영광과 행운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고 축하의 인사를 전했다.

발대식 후에는 병참교육단장 이병빈 장군의 특강을 통해 급양관리의 중요성과 바람직한 군 간부의 자세에 대해 배우며 전문성과 애국심을 갖춘 조리부사관으로 성장할 구체적 결심을 다지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다.

NEWS 2

언어재활과, 제 3회 언어재활사 선서식 시행

지난 5월 13일 사회복지관 1층 시청각실에서 제 3회 언어재활과 선서식을 시행하였다.

시작에 앞서 김정연 학과장은 “언어재활과 3학년 39명의 학생들이 그동안 인성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언어재활사로 성장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가까이에서 지켜봐왔기에 지금 이 자리의 여러분들이 자랑스럽다. 오늘 선서식은 예비 언어재활사로서 봉사의 길을 걸어갈 것을 서약하는 자리이며 먼 훗날 봉사의 마음이 퇴색할 날이 왔을 때 오늘의 선서를 기억하며 언어재활사의 자부심과 소양의식을 가지고 치료에 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하였다.

평생 언어재활에 힘쓰면서 환자들에게 빛과 희망이 되라는 의미의 펜라이트가 선서생들에게 수여되었다.

정상직 총장은 “오늘의 이 자리는 사랑과 봉사정신을 마음에 새기며 바르고 참된 언어재활사로서의 이름고 송고한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것을 선서하는 날이며 사명감을 갖고 환자와 소통하고 봉사하는 언어재활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축하와 당부의 말을 전했다. 선배들의 뒤를 잇는 후배들의 축가로 자리를 더 빛내며 제 3회 언어재활사 선서식이 마무리되었다.



새기며 바르고 참된 언어재활사로서의 이름고 송고한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것을 선서하는 날이며 사명감을 갖고 환자와 소통하고 봉사하는 언어재활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축하와 당부의 말을 전했다. 선배들의 뒤를 잇는 후배들의 축가로 자리를 더 빛내며 제 3회 언어재활사 선서식이 마무리되었다.

NEWS 3

간호과, 제 6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개최

제 6회 간호과 나이팅게일 선서식이 5월 25일 도서관 지하 1층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정상직 총장, 이현주 부총장, 존 엔디컷 우송대학교 총장, 대전광역시 간호사회 송용숙 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선서식은 임상실습을 나가기 전, 나이팅게일의 송고한 정신을 본받아 일생을 간호 전문직에 헌신하겠다는 각오를 다지기 위해 개최되었다. 간호과 2학년 80명은 촛불을 밝히고 ‘일생을 의롭게 살며 환자들에게 사랑의 실천과 봉사를 다하겠다.’고 서약하였다. 정상직 총장은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모든 일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랑스럽고 당당한 간호사가 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대전광역시 간호사회 송용숙 회장은 “간호의 품격과 질을 높이는 부단한 노력과 성실함으로 참 간호를 실천하며 일류의 건강과 복지를 지향하고 간호사의 긍지를 드높이는 전문인이 되어 간호 사업 발전을 주도해나가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하였다. 간호과 총동창회에서는 간호과 발전 기금을 전달하였고, 재학생들은 축가를 선사하였다. 선서에서 다짐한 내용과 같이 나이팅게일처럼 정직하고 현명한 간호사가 되기를 기대한다.

WOOSONG NEWS



NEWS 4

외식조리과, 제 15회 캡스톤디자인 졸업작품 전시회

5월 20일 우송타워 13층 솔파인 레스토랑에서 외식조리과 캡스톤디자인 졸업 작품 전시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우송학원 김상경 이사장, 정상직 총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전시회에는 외식조리과 2학년 학생들이 팀을 이루어 불의 발견, 농경의 시작, 산업혁명, 정보혁명을 주제로 시대 변화에 따른 현대사회를 화려함과 고급스러움, 소박하고 정갈함 등의 다양한 콘셉트로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요리들을 선보였다. 행사에 참여한 '백화 미식'팀의 문지훈 학생은 "작품전을 준비하는 과정은 힘들었지만 팀원들과 한마음으로 완벽한 작품을 선보이게 되어 뿌듯하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이번 행사는 학부모를 초청해서 작품을 직접 감상하고 맛볼 수 있도록 하여 더욱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캡스톤디자인 졸업작품 전시회는 외식조리과 학생들이 세계의 식문화를 이끄는 글로벌 외식조리사로 성장하기 위한 발판이 되도록 매년 열고 있다.



NEWS 5

글로벌실용음악과, 제 22회 명장경진대회 개최

지난 6월 11일 복합터미널 야외무대에서 제 22회 글로벌실용음악과 명장경진대회가 열렸다. 명장경진대회는 학생들의 재능과 능력을 향상시키고 실전 감각을 익히기 위해 정기적으로 열리는 대회이다. 공연은 예선을 거쳐 본선에 오른 12팀과 Best Effort 부문 3개 팀으로 이루어져 총 15팀이 무대에 올라 화려한 공연을 펼쳤다. 이번 대회는 싱어송라이터이자 글로벌실용음악과 교수를 겸임하고 있는 조규찬 교수가 총책임 맡아, 편곡 작업 및 학생들을 지도하였다. 이날 멋진 무대를 보여준 학생들은 대중을 사로잡는 시원한 가창력과 완성도 높은 안무를 선보여 큰 환호를 받았다. 이날을 계기로 글로벌실용음악과 학생들은 한국 대표 음악인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NEWS 6

영상콘텐츠전공·뷰티디자인학부, 중국 가호그룹 전문가교육 실시

우송정보대학은 지난 1월 첫 번째 교육에 이어 지난 8월 15일부터 26일까지 중국 가호그룹 직원들을 대상으로 두 번째 웨딩메이크업 및 포토 전문가 교육을 하였다. 가호그룹은 중국 내 매출 2위의 수백 개의 가맹점을 가진 웨딩 전문기업이다. 우리대학의 우수한 교수진의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직접 최신 트렌드의 웨딩 업스타일, 웨딩 메이크업, 메이크업 자격증, 트렌드 웨딩 포토, 사진 후 보정, ACA 포토샵 자격증 교육을 실시하였다. 웨딩 메이크업을 담당하는 6명과 포토 업무를 맡고 있는 11명의 가호그룹 직원들이 교육을 받았다. 교육을 받은 모든 직원들은 준오 헤어 아카데미 웨딩 헤어 & 메이크업 수료증, 청담 에이블 웨딩 헤어 & 메이크업 수료증, 방송분장사 3급 자격증 아틀리에 드 망고 스튜디오 수료증, ACA 국제공인 자격증, 사)한국 일러스트아트학회의 공인 수료증을 받았다.



NEWS 7

글로벌실용음악과, '실용음악 페스티벌' 본선 진출!

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제1회 대한민국 실용음악 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학생들의 꿈과 끼, 열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만든 자리인 만큼 무한한 꿈을 펼치려는 사람들이 모여 엄청난 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관계자는 "전문대학 실용음악과의 경쟁률은 매우 높다. 하지만 이들이 꿈과 열정을 펼칠 수 있는 무대가 그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생각되어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 총상금 1,300만원과 엔터테인먼트·기획사의 현장 캐스팅 등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우송정보대학 글로벌실용음악과 예미니, 이지은 학생은 [양희은&IU-한낮의 꿈]으로 수많은 팀과의 경쟁을 뚫고 지난 8월 예선을 통과하여 9월 22일 본선에 진출하여 기량을 펼쳤다. 그동안 흘린 땀방울과 피나는 노력을 통해 이룬 값진 결과이다. 한편 글로벌실용음악과 '미니진(이지은, 예미니)'팀과 'D.T.E(강혜주, 김민경, 김소라, 배채림, 안정연)'팀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서 주최하는 '2016년 문화가 있는 날 전문대학 <청춘마이크 시즌2>'에 선정되었다. 위 두 팀은 각각 아름다운 하모니를 보여줄 수 있는 보컬 위주의 팀과 퍼포먼스를 겸비한 팀으로 조규찬 교수의 지도를 받고 있다. '2016년 문화가 있는 날 전문대학 <청춘마이크 시즌2>'는 10월 26일(수) 대전 복합터미널 야외공연장에서, 27일(목)에는 대전 은행동 목척교에서 진행되며, 시간은 18:00~19:00이다.

WOOSONG NEWS

NEWS 8

외식조리과, '전문대학 한식드림팀' 선정! 한식으로 세계를 매료시키다

지난 6월 30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승우)가 백석문화대학에서 개최한 '2016년도 전문대학 한식드림(Dream)경연대회'에서 우송정보대 외식조리과(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상)팀이 대림대 호텔조리과(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팀과 함께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본 경연은 전국 25개 전문대 조리 관련학과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2인 1팀을 이뤄 2시간 내에 직접 창작한 한식 메뉴 2품을 출품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심사는 전통 한식 재료인 고추장, 된장, 간장 등을 사용하여 한식의 우수성 및 창의성을 현대적 감각에 맞게 표현하는데 초점을 맞춰 이루어졌다. 심사에는 한식 관련 학과 교수 2명과 외식업계 전문가 3명이 참여했으며, 모든 평가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블라인드로 이뤄졌다. 또한 심사위원들은 경연을 펼치는 내내 기본 준비 및 식재료 확인부터 참가자들의 조리 전체 과정을 꼼꼼하게 살폈다. 대상을 수상한 우송정보대 외식조리과 서종완·김연상은 "많은 팀들이 양식적인 플레이팅을 했다. 하지만 우리는 한식 그대로의 색깔을 나타내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 전통의 느낌과 맛을 살려 세계에 한식 고유의 장점을 널리 알리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번 대회에서 우송정보대 외식조리과를 포함한 수상 5개 팀은 10월, 미국 뉴욕총영사관과 함께 개최하는 한식 홍보 행사에 '제 2기 전문대학 한식드림팀'으로서 이들이 직접 창작한 한식 메뉴를 뉴욕 현지 주요 인사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NEWS 9

2016학년도 유학생 졸업식 실시

지난 6월 13일 오후 2시 우송관 4층 회의실에서 호텔관광학부 "이남" 학생 외 31명의 졸업식을 실시하였다. 정상직 총장은 졸업 축하사에서 "행복이라는 두 글자를 가슴속에 각인하였으면 좋겠다. 낯선 타지에 와, 꿈을 이루기 위해 고군분투한 유학생들이 대견하다. 앞으로 한·중 양국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 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졸업생 32명 중 27명의 학생은 우송대학교로 3학년 편입을 결심하여 한국에서의 공부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NEWS 10

2016학년도 유학생 입학식 실시

지난 8월 30일 오전 11시 30분 우송관 4층 회의실에서 남경 특수교육직업기술대학, 마안산사범고등전문대학과 정강산대학교에서 2년 공부하고 '2+1 협약'으로 편입학 온 유학생, 남경금릉직업중등전문학교에서 '3+2 협약'으로 신입학한 유학생들의 입학식을 실시하였다.

이날 입학식에는 정상직 총장을 비롯한 교무위원과 유아교육과 학과장, 호텔관광과 학과장, 간호과 학과장, 삼마스터·유통경영과 학과장, 중국 교류실 실장 및 지도 교수 등이 참석해 유학생들의 입학에 축하해주었다. 정상직 총장은 '꿈'이라는 주제로 축사를 진행하였으며, 특히 "지역명문, 우송정보대학에 입학한 중국 학생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본교가 한국을 대표하는 명장에서 나아가, 세계 대표 명장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유학생 대표, 이정문 학생은 "양 대학의 명예를 지켜나가고 소중한 유학의 기회이니만큼 우송정보대학에서 면학에 힘쓸 것"이라고 선서를 통해 다짐하였다.



NEWS 11

호텔관광과, 동문들이 이루어 낸 결실

호텔관광과 동문들의 노력이 빛을 발하고 있다. 임병설 동문(84학번)은 지난 9월 The-K Hotel Seoul(더 케이 호텔 서울)의 총지배인으로 부임하였다. 총지배인은 호텔의 숙박시설과 각종 부대시설에서 종사하는 종업원들의 업무를 감독·조정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책임자다. 더 케이 호텔 서울은 1991년에 개관하였으며 특 1급의 호텔로 전국 체인호텔을 갖추고 있다. 이일행 동문(84학번, 현 서울항공 나드리관광여행사 대표이사, 현 대전광역시관광협회장)은 지난 10월 8일 대전관광협회의 주관으로 개최된 제43회 관광의 날 행사에서 관광산업진흥을 통해 국가산업발전에 이바지한 공로로 석탑산업훈장을 수상하였다.

NEWS 12

밥 무라! 배고프다 아이가! 총학생회 깜짝 이벤트

지난 5월 26일과 27일 총학생회에서는 아침밥을 챙기지 못하는 학우들을 위해 깜짝 이벤트를 진행하였다. 총학생회 임원들은 등교하는 학생들의 손에 엄마와 같은 마음으로 김밥과 음료수를 쥐어주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뜻밖의 선물을 받은 학생들은 기분 좋게 하루를 시작하며, 배를 든든히 채울 수 있었다. 따뜻한 정을 베풀어준 총학생회! 다음에도 우리의 아침을 부탁해!



NEWS 14

총학생회 주관 풋살대회 개최

지난 9월 24일 우송정보대학 학생들의 단합과 협동심 향상을 위한 풋살대회가 삼성동 풋살 경기장에서 열렸다. 32대 총학생회에서 주관한 이번 대회는 총 16팀의 학과가 참여한 가운데 조별 리그 1, 2위 팀이 결승에 진출하고 4강부터 토너먼트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젊고 열정적인 패기와 선수 못지않은 실력으로 마지막까지 치열한 경기를 펼친 결과, 철도교통학부가 우승을 차지했다. 우승팀에게는 상금과 트로피가 수여되었다. 뜨거운 열정과 멋진 승부를 보여준 학생들에게 무한한 박수를 보낸다.



NEWS 13

또래상담자 수료식

지난 5월 10일 오후 5시 학생코칭센터에서 2016년도 제 12기 또래상담자 수료식 및 출범식을 가졌다.

총 60명의 또래상담자들은 2016년 4월 5일부터 5월 9일까지 인간관계의 기본원리, 교우관계에서 우정을 형성하고 발전 및 유지시키는 방법, 협동심과 응집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등에 대한 교육과정을 마쳤다. 이들은 학과교수들의 추천 및 지원으로 교육에 참여하였으며 마음을 열고 대화할 수 있는 친구, 어려움을 겪는 학우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력자로서 심리적, 신체적 어려움과 학업중단의 징후를 보이는 학생들의 적응을 돕는 길라잡이가 되어 교우들 간의 건전한 협동심과 소속감 및 집단 응집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정상직 총장은 축사에서 또래상담자가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 발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글로벌 인재 마인드를 토대로 상대와의 친밀감 형성과 배움의 열정을 갖추고 더불어 성장하는 리더십 능력을 향상시키면서 이 시대의 트렌드를 이끄는 한국대



표 명장으로 성장하기를 당부하였다. 제 12기 또래상담자 회장에는 신은경(뷰티디자인과), 부회장에 김경태(철도교통학부)와 박경민(호텔관광과)이 선출되었다. 우송정보대학은 지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또래상담자 양성과정을 통해 총 431명의 또래상담자를 배출해왔다.

NEWS 15

장애학생 도우미 교육 시행 및 간담회

지난 9월 23일 국제경영센터 3층 학생 회의실에서 장애 대학생 도우미 사전·안전교육과 장애대학생들의 간담회가 열렸다. 참여한 학생들은 장애학생을 위한 학생식당의 시설 및 음식 메뉴 개선과 스쿨버스 배려좌석 및 이동의 편의성을 고려한 버스노선 확대 등을 건의하였다. 또한 이곳에서 장애학생 도우미 사전 및 안전 교육도 시행되었다. 교육 내용은 장애별 특성 파악을 파악하고 그들을 배려함과 동시에 소통하는 방법, 활동 시 주의할 점 등이었다.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이채식 교수는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이 비장애 학생들과 함께 어울려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함은 물론이고 모두가 관심을 갖고 소통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입학에서 입사까지! 2017년 신설과를 소개합니다!



[1] "달콤한 제과·제빵 문화를 전파하는 글로벌 베이커"

글로벌 제과제빵학부 일본제과제빵전공

일본에는 스시만큼이나 유명한 미(味)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바로 베이커리입니다. 베이커리 하면 보통 유럽을 떠올리실 텐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제과제빵 업계에서 세계의 이목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곳은 바로 일본이라고 합니다. 각국의 미식가들이 일본 현지 베이커리 투어에 나설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제, 일본의 한 문화로서 자리 잡은 베이커리!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일본 제과제빵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관련 학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국내 최초로 신설된 일본제과제빵학부는 현지 교수의 지도 아래 일본 진출을 위한 일본어 수업은 물론이고 제과제빵 실습까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세계의 관심이 집중된 차세대 뉴트랜드, 일본 제과제빵! 우송정보대학에서 명장의 꿈을 키워보세요!



[2] "세계의 식문화와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글로벌 외식조리사"

외식조리학부 아시아조리전공(일본 코스/중국 코스)

어느 순간부터 길거리에 흔히 보이는 중국집과 일식집! 우리의 식생활 문화에 녹아든 중식과 일식은 이제는 빠질 수 없는 메뉴들이 되었는데, 뿐만 아니라 최근 동양 아시아의 음식에 집중되는 세계의 흐름에 발맞춰 아시아조리전공이 신설되었습니다!

외식조리학부의 아시아조리전공에서는 일본과 중국 등 아시아 현지 진출을 위한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은 물론이고, 일본어와 중국어 수업 그리고 일본 및 중국의 유명 전문학교에 단기연수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실무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일식과 중식! 이곳 우송정보대학에서 세계로 나아가는 글로벌 전문 셰프의 꿈을 이루어보세요!



[3] "미래 사회를 이끌어 갈 스마트로봇자동화 전문가"

스마트로봇자동화과

최근 로봇 산업이 성장함으로써 로봇 상용화에 대한 관심 또한 커지고 있는데요. 이미 로봇 강국인 미국, 일본, 중국을 뒤이어 우리나라 또한 로봇 산업이 크게 발달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로봇 산업·기술! 이처럼 로봇과의 미래를 위해 반도체, 정보 통신, 로봇기술 등 공학 분야의 전문기술인 양성을 목표로 스마트로봇자동화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스마트로봇자동화과에서는 드론 제작 등 현장감 넘치는 수업과 함께 해외연수 학기제의 참여 기회도 부여된다고 하네요! 앞으로 발전이 무궁무진한 로봇 산업, 세계로 뻗어 나가는 로봇 산업 세계 무대에 서고 싶은 로봇 전문가의 꿈, 우송정보대학에서 키워주세요!



[4] "전문적 지식과 실무능력을 갖춘 국내 명품 수의 간호사"

애완동물학부 애견의료전공

애견 인구 천만 시대를 맞이하는 지금, 동물을 반려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애완동물과 함께하는 사회의 흐름에 발맞춰 애견미용기술 능력을 함께 갖춘 동물 간호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국내 최초, 애견의료전공이 신설되었습니다!

애견의료전공은 교내의 슬펫 동물병원에서 이루어지는 현장실습으로 실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요. 게다가 애견(소형견)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기숙사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나의 반려견과 함께 우송정보대학에서 명품 수의 간호사의 꿈을 이루어주세요!



[5] "대한민국 최고 치과경영 관리 전문가"

치과경영과

점점 대형화되는 치과병원의 규모에 따라 치과행정 분야가 세분화하며 전문적인 치과경영 지식을 갖춘 전문가 양성을 위해 전국 최초로 치과경영과가 신설되었습니다!

치과경영과는 대한치과의사협회와 대전광역시 치과의사회와의 결연으로 100% 취업을 보장하며 현장 맞춤형 교육을 통해 최고의 실무능력을 가진 치과경영인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국 최초라는 타이틀을 가진 치과경영관리사의 영광을 우송정보대학에서 함께 시작해 보세요!



[6]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학과"

스마트경영학부 자기설계자율전공

현대 사회에서는 꿈을 향해 쫓아가는 이보다 꿈을 찾아 헤매는 이가 더 많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자율전공을 선호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2017년 우송정보대학에서는 전문대학 유일하게 학생 스스로 자신의 인생 및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는 자기설계자율전공이 신설되었습니다.

자기설계자율전공은 1학년 1학기의 전공탐색 과정을 통해 전공분야와 미래 직업에 대한 기초 능력을 기른 후 지도교수의 전공 상담과 지도를 통해 본인의 적성 및 특성에 적합한 전공학과를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유아교육과, 간호과, 조리부사관과를 제외한 모든 학과 선택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사회로 나아가는 인생의 첫 설계, 우송정보대학과 함께 그려보세요!



◆ 이채원 · 하정인 기자



더불어 함께하는 학교를 위한 장애학생지원센터

우송정보대학에는 조금 특별한 친구들을 위한 센터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바로 장애학생지원센터입니다. 이곳은 몸이 불편한 친구들이 보다 나은 대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과 혜택을 아끼지 않는 곳이라고 하는데요. 친구들을 위해 어떤 혜택이 마련되어 있는지 한 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대상 학생들을 위한 교수·학습 지원

친구들이 버거워할 수 있는 수강과목 및 강의실을 우선 배정하고 보고서 작성과 워드작업, 강의 및 시험 대필 도우미, 튜터 도우미, 멘토링 등의 학습 도우미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덜어줄 생활 도우미까지 장애학생의 교수·학습지원에 필요한 인재들을 선발하여 1:1 배치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상 학생들의 생활과 복지를 지원

학생들의 대학생활 및 학습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상담을 실시하고, 기숙사 신청 시 우선 배정은 물론이고 전용기숙사 설치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도서관 이용 시에도 전용 열람석 및 컴퓨터를 설치하고, 도서를 대신 대출해주어 전달해주는 배달 서비스 또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학생들의 원활한 이동을 위한 보조기기들도 대여하고 있다고 해요.

세 번째! 대상 학생들을 위해 진로상담을 지원

장애학생들의 학업생활, 진로 및 취업 등 도움을 주기 위해 정기적으로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기 주도적 자아탐색 및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진행하여 자기 이해를 통해 취업대비를 대비할 수 있도록 교육체험 및 진로계획 수립 등을 중심으로 한 집단 상담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학생들을 위한 기업 인턴십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네요! 또한 우리학교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교육 및 캠페인을 통해 비장애인들이 장애를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 교직원, 재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장애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난 여름방학 중에는 우송정보대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동료상담프로그램'을 진행했었는데요!
제가 그 현장을 취재해 보았습니다!

대전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현주 부국장님이 장애학생동료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하셨습니다.
부국장님도 신체적으로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장애에 관련된 경험과 지식, 기술을 공유한 동료장애인의 입장에서, 서로 이야기를 들어주고, 상호지지하며 자립생활을 위한 방안을 나누었어요.

자신의 내면의 억압된 감정을 깨닫는 시간을 가졌고, 장애로 인한 사회적 불이익에 대하여 생각하고, 스트레스 상황을 재현하면서 긍정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도 했구요.



김현주 부국장님을 만나 잠시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Q. 대전서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무엇을 하는 곳인가요?

여러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사회에 나와서 살아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비장애인들의 인식개선 지원 및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의 환경 개선을 시청이나 관공서 등에 건의를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또한 중증 장애인들이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술훈련 활동은 물론이고 동료상담을 통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Q. 이틀간 무슨 프로그램을 하는 것인가요?

이론 강의를 포함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각자의 이야기를 하고 들어주는 시간을 비롯해서 역할극을 통해 비장애인의 입장도 되어보고 또 상황극을 통해 차별을 당한 상황에서 어떤 대처 방법을 취해야 하는지 등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어요. 또한 자신감 회복을 위한 자기주장 훈련과 같은 프로그램도 마련했습니다.

Q. 이 글을 읽는 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저는 평소에도 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장애인은 편견이나 차별의 대상이 아니라 같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마땅하고 나와는 다른 존재로 인식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요. 어느 날 갑작스런 사고로 인해서 나의 가족 혹은 자신이 장애를 가질 수도 있고, 장애를 가진 그들도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들에게 동정심을 갖고 무언가를 더 해주라는 것이 아니라, 편견 없이 그들을 바라봐 주었으면 좋겠어요.

Q. 이번 행사를 진행하게 된 이유는?

대부분 사회의 인식에 의해 장애인들이 약자로 비취질 수도 있고 그들 스스로도 자존감이 낮은 편이예요. 이를 회복함과 동시에 비장애인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학교생활 역시 당당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장애는 누구나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드러나는 것인가 아닌가의 차이일 뿐.
그들도 나와 다를 것이 없는 우리의 소중한 친구입니다.

차별이 아닌 그들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평등한 세상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우송인이 됩시다.

◆ 김동희 기자

나의 취업 서포터즈! 취업지원센터

나의 미래 행복을 위한 일취월장 (일찍 취업해서 월급받아 장가·시집 가자)

요즘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 취업! 이 고민을 해결할 방법 없을까요?
바로 학생들의 취업지원을 위하여 힘쓰고 있는 취업지원센터입니다!
취업지원센터 전문 컨설턴트를 만나고 왔는데,
함께 보실까요?

❖ 김동희 기자



Q. 취업지원센터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취업지원센터에서는 재학생 및 졸업생들에게 진로상담, 취업정보 제공, 취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 학생들을 위하여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Q. 취업지원센터에서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나요?

변화하는 직업환경과 학생수요를 반영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학생 및 졸업생들의 취업을 위하여 체계적인 취업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취업 및 진로상담, 이력서클리닉, 면접클리닉, 직업심리검사, 취업관련 정보 제공, 취업넷 운영 등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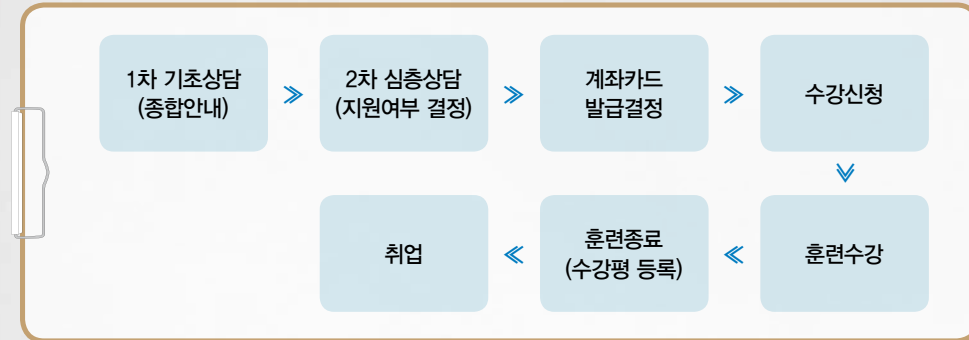
인생에서 자기가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는 하나의 비결은 '준비'입니다. 달성해야 할 목표를 정하고 그때까지 자신을 연마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천편일률적인 자소서가 아닌 핵심 역량을 제대로 이해하고, 또한 그 경험을 단순 나열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경험에서 배운 것들을 자신의 생각으로 명확하게 정리해가는 노력과 과정이 필요합니다

☞ 위치 : 동캠퍼스 국제경영센터(E2) 101호와 서캠퍼스 사회복지관 (W10) 109호에 있습니다.
☞ 미리 예약하고 방문하는 센스!! Tel.042-630-9691

혹시 '취업성공패키지'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요즘같이 취업하기 어려운 세상, 예비 졸업생들은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고민이 많으시죠? 그렇다면 취업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해서 고민을 덜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1. '취업성공패키지'란?



* 참여대상자 : 만 18세 ~ 34세

- 고졸이하 미취업 청년
- 대학 졸업 및 수료 미취업 청년(마지막 학기인 재학생도 가능)
- 워크넷 구직등록 필수

1단계 진단 경로설정

- 초기상담 / 직업심리검사 / 집단상담(선택) / 개인별 취업활동 계획 수립으로 구직욕구를 파악하는 단계
- 기간 : 최소 3주(주 1회 상담 및 방문)
- 1단계 참여하는 동안 참여수당으로 '15만원 지원'
- 이력서, 자기소개서 클리닉/면접 준비 등 취업지원에 관해 도와준다.

2단계 취업알선 서비스강화

- 최소 2회의 취업상담/알선/구직활동 과제/기업분석/직무분석으로 일단, 구직활동을 위해 입사지원을 하는 단계 (과연 훈련을 꼭 받아야 하는지 확인해보는 단계)
- 기간 : 최소 2주(2회 상담)
- 이력서, 자기소개서 클리닉/면접 준비 등 취업에 관해 더 자세히 도와준다.

3단계 집중 취업알선

- 이력서 자소서 클리닉/면접·이미지 클리닉/채용정보제공/취업알선/동행면접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입사 지원하는 단계
- 기간 : 최소 3개월(월 1회 상담)

⇒ 각 단계를 거쳐 취업지원을 원활하게, 심층적으로 진행합니다.

※ 그러나 모든 단계를 거치지 않아도 얼마든지 취업지원은 가능합니다.

우정인 여러분들!

나의 직업으로 무엇을 선택해야할지...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취업성공패키지'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적성에 맞는 직업도 찾고 그에 맞는 일자리도 함께 찾아보는 건 어떨까요?

글로벌 명장의 첫 걸음, 우송어학센터

'우송'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바로 글로벌!
우송어학센터는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학생들의
외국어 실력 향상을 위한 상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
늘 북적북적 학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 김애림 · 하정인 기자

동캠퍼스와 서캠퍼스에 위치해 있는 English Cafe와 Writing Lab에서는 학생들이 언제나 자유롭게 원어민 교수님들과 폭풍수다도 떨고, 덤으로 영어 공부 팁도 얻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취업 시 필요한 영문 자기소개서 교정은 물론이고 때로는 학교 과제도 쓰숙~ 그뿐만이 아니에요! 어학센터에서는 Club Activities를 통해 재미있게 영어를 접할 수 있도록 볼링이나 보드게임, 맛집 탐방 같은 신나는 일들이 가득하다는 사실! (게다가 공~짜)



저희도 Club Activities에 참여하기 위해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Lunchtime Homework Club의 문을 살짝 두드려보았어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고 들어가니 Michael Diehl 교수님께서 이미 학생들과 즐겁게 대화를 계셨는데요! 교수님은 이 시간을 통해 오히려 자신이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많이 배운다며, 클럽에 참여한 모든 학생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많게는 하루에 1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찾아온다는 이곳! 도대체 어떤 비법으로 이런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무엇보다 학생들의 고민에 귀기울여주고 진심어린 조언과 충고를 아끼지 않는 원어민 교수님! 영어실력 부족으로 유창한 영어 회화를 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는 학생의 고민에

"영어는 말소리를 통한 소통의 수단일 뿐이다. 아주 조금이라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면, 아무 문제없다."며 영어로 말한다 것에 두려움은 가지는 순간, 자신의 발전을 스스로 가로 막는 것이라며 항상 자신감 있는 마인드를 가져야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번에는 Movie Night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이 행사는 원어민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직접 투표에 참여하여 영화를 선정하고, 함께 관람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이번에는 'STAR TREK'을 함께 감상하였습니다. 영화를 보고 난 후에는 영화 감상평을 하고 배우의 연기에 대한 대화를 나누며 소통하는 아주 유익한 시간도 자리였는데요. 영화에 나오는 영어 표현들, 영화 줄거리에 대한 퀴즈타임도 진행되어 정답을 맞춘 학생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증정했습니다. (아~ 부럽다!)

이 외에도 깜짝 이벤트로 지난 4월, Easter & St. Patrick's Day를 기념하는 파티가 열렸습니다.

서양의 큰 축제, Easter & St. Patrick's Day는 매년 3월 17일 아일랜드에 기독교를 처음으로 전파한 선교사 성 패트릭(St. Patrick)을 기리는 날이라 해요. 그는 처음, 기독교 교리를 세 잎 짜리 토끼풀에 비유하여 설명하였는데 이러한 이유로 초록색은 이날의 상징이 되었다고 해요. 이번 행사에서는 Easter egg 꾸미기, Green Dress code에 맞게 잘 차려입은 사람 찾기 등 재미있는 이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가 몰랐던 외국의 문화를 알고, 즐겁게 영어실력도 쑥쑥 키울 수 있었던 최고의 파티였습니다. 곧 다가오는 Halloween Day에는 어떤 재미있는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 ☞ English Cafe 동캠퍼스 테크노디자인관(E1) 208-1호
- ☞ Writing Lab 서캠퍼스 우송관(W7) 212-2호
- ☞ 이용시간 : 월요일~목요일 12시~2시, 오후 2시~4시

원어민 교수님과 함께 하는 Club Activities!

항상 참석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니 언제든지 참석 환영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Students do not need to come to every meeting, they are welcome any time!)

강좌명	담당교수	일시 및 장소	클럽 활동 내용
English Board Game Club	Alejandro Chavez Mike Diehl	금, 12:30 ~ W12 2층 테이블	즐겁게 보드게임을 즐기며 자연스럽게 영어말하기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동아리.
Food Photography Club	Alejandro Chavez Heather Dozier	금, 12:30 ~ W12 2층 테이블	음식사진을 찍는 기술과 관련 영단어도 배우고 SNS에 게시물을 공유하고 그때 사용하는 영어표현도 배울 수 있는 동아리.
Restaurant English (restaurant tour)	Mike Peacock	수, 13:00 ~ 14:30 다양한 식당 방문	식당에서 당황하지 않고 영어로 주문하고 싶으신가요? 다양한 맛집들을 방문하며 주문을 할 때 사용하는 영어표현, 음식의 맛과 가격 그리고 분위기에 대해 이야기 하는 동아리로 오세요.
Let's Cook!! Cooking Club	Karin Du Toit	매달 둘째 주 월, 12:00 ~ 13:00 W15 406	각자 조리법을 준비하여 다 함께 모여 요리해보고 하기 말에는 최고의 레시피를 뽑아 특별한 요리책을 만드는 동아리.
Kayak Club	Onome Isiorho	금, 12:00 ~ 16:00 W4 A110	한국의 다양한 아름다운 해안지역에서 영어도 배우며 원어민 교수님들과 함께 신나는 카약을 즐길 수 있는 kayaking club!
Business and Resume Writing Club	Paula Rosellini Sean Sookochoff	목, 13:30 ~ 14:30 E1 2층 English Cafe	해외취업이나 유학에 관심 있으신가요? 이력서작성, 면접, 다른 종류의 인턴십 까지 원어민교수님들이 도와주는 동아리에 방문하세요!
Chinese Language Club	Robert Nickson	수, 12:00 ~ 14:00 E1 411	중국어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같은 흥미와 관심을 가진 다른 학생들을 만날 수 있고 서로 중국어로 대화하며 함께 실력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Woosong Helpers	Scott Curtis Gordon Lloyd	매달 둘째, 넷째 주 금, 13:00 ~ W18 건물 앞	봉사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이 모여 원어민 교수님과 함께 운영해나가는 봉사활동 동아리.
Guitar Club	Van Walker Brandon Sherman	수, 15:00 ~ 17:00 W18 211	기타와 팝송을 배우며 영어실력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기타클럽에 방문하세요!
Design and Coloring Club	Mark Sabourin	월, 13:00 ~ 14:00 E1 411	원어민 교수님과 자유로운 분위기 속 디자인이나 컬러링을 즐기고 힐링하며 영어실력도 향상시키는 동아리.
Weight Training Club	Carla Spence Iman Jones	목, 16:30 ~ 17:30 동캠퍼스 체육관	운동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체력을 기르고 싶으신가요? 원어민 교수님들에게 자연스럽게 영어도 배우며 운동을 배워보세요!
Talk and TOEIC	Neil Briggs	수, 09:00 ~ 10:00 E1 2층 English Cafe	TOEIC을 공부하며 같은 목표를 가지고 준비하는 학생들과 관심사를 나누고 자연스럽게 영어에 대한 능력을 기를 수 있는 동아리.
Baseball Club	Jeff Baker Ian Murray Darryl Pugh	화, 12:00 ~ 14:00 E2 508	한밭야구장 또는 근처 식당이나 카페에서 함께 실시간 야구경기를 관람하거나 야구에 대해 관심을 공유하는 동아리.
Woosong Bowling Club	Sean Sookochoff Jerry Pittman	화, 18:30 ~ 서캠퍼스 투썸플레이스 앞	새로운 사람들과 교외에서 즐겁게 영어를 배우며 볼링을 칠 수 있는 동아리.
Pool and Darts Club	Donald Hobbs	화, 13:30 ~ 15:00 W15 201-1	포켓볼과 다트게임을 하며 즐겁게 영어를 배울 수 있는 클럽.
Drama Club	Joan Pagnotta	수, 12:30 ~ 13:30 E1 512	연기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드라마 클럽에 와서 자신감 있게 말하는 능력도 키우며 영어실력을 향상시켜 볼까요?
Financial Planning Club	Sean Sookochoff	매달 둘째 주 수, 17:00 ~ 18:00 서캠퍼스 투썸플레이스	다양한 주제에 관하여 지출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며 자유롭게 대화하는 동아리
Lunchtime Homework Club	Lysa Weber	목, 금 13:00 ~ 14:00 E1 310	영어 과제에 대한 질문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방문해 주세요!

▪ 대상 : 우송정보대학 재학생
▪ 문의 : 우송정보대학 어학교육센터 ☎042-629-6933

우송만의 신입사원 양성 프로젝트! 주문식 교육과정

“우리 학생들의 취업역량강화를 위한 우송정보대학 EOD 프로그램(주문식 교육과정)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주문식 교육과정은 산학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학생들이 충분히 갖추도록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2학년 여름방학부터 직접 해당 기업으로 현장실습을 나가 실무를 익혀 곧바로 취업으로 이어지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대학에서는 기계자동차설비학부, 철도토목과, 리모델링건축과, 기계전자자동화과에서 전문인력/실무인력 양성반을 운영하고 있고, 삼마스터유통경영과에서 삼성 전자 소매유통반을, 뷰티디자인학부에서 준오헤어반, 호텔관광과는 제주롯데호텔반과 대명레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대기업통신반(KT, SKT, LGU+), 대기업 운영반(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만 들어도 근사한 제주롯데호텔반과 대명레저반을 운영하고 있는 호텔관광과의 장인식 학과장님과 인터뷰를 해 보았는데, 모두 다 같이 만나볼까요?

Q. 호텔관광과 EOD주문식 교육과정은 어떤 방법으로 진행이 되나요?

우선 1학년 1학기에 교양과목과 전공기초 과목을 수강하고 학생들이 희망하는 기업을 설정한 후에 자신이 원하는 진로방향대로 조를 만들어 모둠활동을 하는데요. 기업이 원하는 조건에 대해 살펴보고 자신이 이 기업을 가기 위해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이를 채워나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등의 내용으로 학기별 발표를 비롯하여 학과 경진대회를 진행합니다.

Q. 호텔관광과만의 EOD주문식 교육과정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1학년 때부터 철저히 학생들을 관리·감독하기 때문에 대명리조트, 롯데호텔 등의 기업에 취업률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또한 원하던 취업처에 채용이 확정되었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직장 근처에 거처를 마련하기가 어려워, 입사를 포기해야하는 위기에 놓인 학생이 있다면 이를 해결할 경제적인 지원도 아낌없이 해주고 있습니다.

Q. 마지막으로 호텔관광과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면접 시, 학생들에게 지원동기를 물어보면 막연하게 ‘멋있어 보여서’ 혹은 ‘재미있을 것 같아서’라고 대답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뚜렷한 목표 없이 입학한 학생들은 금방 실증을 내고 학과 수업을 힘겨워 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런 친구들도 착실하게 학교생활을 즐기다보면 터닝 포인트라고 할 만한 일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로 인해 목표가 생기면서 행동의 변화도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에 취업까지 하게 돼요. 이러한 과정 속에서 항상 학생 곁에 담당교수님들이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호텔관광과를 비롯한 우송정보대학 학생들 모두 꿈을 향해 신나게 달려 나가, 자신만의 목표 지점에 도착하길 바랍니다.

우송정보대학만의 특별한 주문식 교육과정!
우송인 여러분! 모두 열심히 노력해서 멋진 꿈, 꼭 이루어내기를 항상 응원합니다!!

❖ 김동희 기자

CEO를 향한 첫 번째 발돋움, 벤처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우송정보대학에서는 매년 ‘벤처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해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총 18팀이 참가한 치열한 예선을 거쳐 9팀의 프리젠테이션이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벤처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란 대학생들의 취업과 창업을 격려함과 동시에 벤처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창업 아이디어를 구체화 및 사업화하여 청년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우송정보대학만의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 김동희 기자

먼저 이번 2016년 벤처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외식조리과 NSF프로젝트팀의 대표 김미혜씨를 만나보았습니다!

Q. NSF프로젝트 팀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NSF프로젝트 팀은 미래지연적인 음식을 개발하기 위해 저희들이 직접 유기농 발농사를 짓고 개발하는 등의 여러 연구를 하는 동아리입니다.

Q. 우송정보대학 외식조리과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우연히 학교 홈페이지를 보다가 블럭제라는 매우 흥미로운 수업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외식조리과가 굉장히 유명한 학교이기도 하고, 쾌적한 시설을 비롯하여 비교적 짧은 기간 내에 다양한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최종 입학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Q. 벤처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 참가하게 된 지원 동기가 있을까요?

예전부터 제 꿈은 경영 관련 일을 하거나 직접 창업을 하는 것이었어요. 이 대회를 통해 나와 비슷한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의 목표를 향해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Q. 팀 이름이 'NSF프로젝트'인데 특별한 뜻이 있나요?

N(Nature) + S(School) + F(Future food)를 합쳐서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자연과 학교를 합쳐, 직접 밭에서 수확을 하며 미래지연적인 음식을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Q. 대회에서 소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하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을까요?

현대 사회에서 1인 가구의 수는 더욱 증가하고 있는데 배달 음식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문화 특성상 혼자 외식을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매 끼니마다 쌓이는 설거지에 장보는 것도 여간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낸 아이디어가 1인분만 주문할 수 있는 배달 서비스, 그리고 저희가 직접 가서 요리를 도와주는 출장 서비스를 고안했습니다.

Q. 어떤 상품인지 간략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이 상품은 소비자가 원하는 음식 메뉴를 고르면 그에 맞는 식재료 배송뿐만 아니라 고객의 요리 능력 수준과 요구에 맞추어 동영상 교육 및 PFT (Personal Food Training) 즉, 개인 음식 코칭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아이템입니다!

Q. 대상을 받으셨는데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참신한 아이디어와 기획력, 완벽한 발표까지 훌륭한 팀이 정말 많은데 저희 팀이 대상을 받게 되어서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간 대회를 준비하며 힘들었던 모든 것들이 다 해소될 만큼 너무 좋았어요. 무엇보다 아낌없이 저희들을 도와주신 김태형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고 전해주고 싶어요.

Q. 내년 벤처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에 참여하게 될 친구들과 후배들에게 우송자로서 조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저희 팀은 다른 팀에 비해 대회를 준비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서 개인적으로 아쉬운 점이 많았어요. 사실, 가장 중요한 아이디어도 단시간에 생각해낸 것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조사 및 아이템 기획 등을 미리 준비하라고 조언하고 싶어요. 또한 준비과정 중 어려움이 생겼을 때 교수님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경진대회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을 한층 더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꼭 한번 도전해보았으면 좋겠어요!





행사 때마다 화려한 실력을 뽐내며 자리를 빛내주던 글로벌실용음악과 인재들이 역시 이번 축제에서도 첫 번째 무대를 밝혀주었는데요. 파워풀한 보컬과 함성이 절로 나오는 댄스로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두 번째 축하 공연인 흥대 유명 싱어 송 라이터, '손아름 밴드'의 감미로운 노래로 본격적인 축제의 막을 올렸습니다.

흥겨운 축제 분위기에 한껏 취한 채, 각 학과에서 야심차게 준비해 온 부스에 가보았는데요. 뷰티디자인학부는 네일 케어와 페이스페인팅, 샵마스터·유통경영과는 중고 명품 베품시장, 그리고 디자인·영상콘텐츠학부의 귀금속디자인전공에서는 액세서리를 만들어 팔기도 하였습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준비한 대학생을 위한 '성 인식변화 캠페인'도 열렸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추억의 동전 던지기, 공포의 룰렛 같은 즐길 거리는 물론이고 출출한 배를 채워줄 외식조리과와 식품영양조리학부의 환상적인 먹거리도 가득 준비되어있어, 몸도 마음도 풍요로움이 가득한 축제였습니다.

분위기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쯤 스포츠경영학과의 강인함이 한껏 느껴지는 멋진 무술공연이 펼쳐졌는데요. 화려한 퍼포먼스와 군무로 우리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다음은 작년 우송가요제 우승자였던 염상섭님이 잔잔하면서도 흡입력 있는 마력의 목소리로 '나윤권-기대'라는 곡을 불러, 저희를 매료시켜 버렸습니다!



축제 두 번째 날, 우송정보대학의 야심작! '우정가왕', 예선을 통과한 쟁쟁한 실력자들의 우승을 둘러싼 쟁탈전은 정말 치열했습니다. 열기 가득했던 무대가 끝난 후, 뜨거운 분위기를 뒤이어 경품 추첨이 이루어졌는데요. 추첨 선물들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1등에게는 대학생의 필수품 노트북, 2등은 주말 운동을 책임져 줄 자전거를, 그리고 3등에겐 소중한 추억을 남겨줄 플라로이드 카메라 등 푸짐한 상품들이 가득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당첨자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모두가 애대게 기다리던 축제의 하이라이트! 가수들의 화려한 축하 무대가 이어졌는데요. 축제 첫날엔 호소력 짙은 보이스를 가진 디셈버와 화려한 퍼포먼스로 분위기를 아주 Hot하게 만든 밤비노의 무대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파워풀한 목소리와 시원한 가창력의 유성온과 현장의 분위기를 한껏 달아오르게 한 멋진 무대를 보여 준 마마무가 축제의 피날레를 성공적으로 장식해주었습니다.



이번에도 약 4만 명의 많은 분들이 우정문화제를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축제가 성황리에 잘 마무리될 수 있었던 건 학생들의 뜨거운 열정과 실력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모두의 안전과 환경 미화까지 책임져 준 경호보안과 학생들의 수고 덕분이 아닐까요? 모두가 실력을 뽐내며 즐길 수 있었던 젊음의 축제! 해가 거듭될수록 더욱 더 기대되는 축제! 우정 문화제였습니다.

2016 우정문화제 우리가 만드는 우정의 문화! 우정문화제, Attraction!



푸릇한 봄이 지나고 본격적인 더위가 찾아오던 지난 6월, 32대 총학생회가 주최한 진정한 대학문화! '우정문화제'가 열렸습니다. 이번 축제에도 역시나 학생들의 가득한 젊음의 열기로 화려한 라인업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학생들의 열정으로 Hot했던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 하정인 기자





단연 체육대회의 꽃이라 할 수 있는 계주와 단체 줄넘기, 피구, 농구, 발야구 등 학생들이 그동안 숨겨두었던 발군의 운동 실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경기가 펼쳐졌습니다. 참여 선수 모두 국가대표 운동선수 못지않은 치열한 기세로 손에 땀을 쥐게 하였습니다.

대회 첫째 날, 뜨거운 현장의 분위기를 식히려는 듯이 우천이 계속 되었지만 거세지는 빗방울에도 개의치 않고 모두 대단한 열정으로 경기에 임해주었고, 하늘이 이에 감동한 듯 다음 날은 날씨가 무척 맑아 체육대회의 분위기도 한층 달아올랐습니다.



우송체육대회, 88올림픽 열기보다 뜨거웠다!



신록의 계절 5월! 여름의 태양만큼 뜨거운 한호 속에서 우송인의 끈끈한 결속력을 보여줄 '우송체육대회'가 개막했습니다. 예선전부터 결승전까지 학생들 모두 엄청난 열정과 패기를 보여주어 그 어느 때보다 짜릿한 긴장감과 흥분이 가득한 날이었습니다.

특별 이벤트로 '스포츠 경호학부를 이겨라!'라는 스킬만점 축구 경기와 함께 학보사에서 '우승 예상 팀을 맞춰라!', '과티 예쁘기 입기' 등의 여러 행사를 통해 경기에 참여 하지 않는 학생들도 즐거운 체육대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썼다고 합니다. 가장 호응도가 좋았던 '과티 예쁘게 입기'는 남다른 패션 센스로 멋지게 과티를 소화해 낸 사진을 SNS에 업로드해 준 팀 중 간호과, 언어재활과, 애견동물학부가 많은 인기를 얻어 소정의 상품을 증정 받았습니다. 이에 질세라 총학생회에서는 운동장 한가운데에서 벌이는 즉석 댄스 경연대회를 통해 열기를 더욱 고조시켰습니다.

대망의 시상식에서 우승의 영예를 안은 팀은 '외식조리학부'였습니다. 학과 대표가 단상 위에서 우송정보대학 깃발을 펴리며 트로피를 번쩍 치켜들자 그들을 축하하는 박수 소리가 운동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 밖에도 아쉽게 우승하지 못한 여러 학과들을 위해 응원상을 비롯한 여러 특별상들이 마련되어, 많은 팀이 수상의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행사가 끝난 후, 각 학과에서는 자발적인 청소를 실시하여 우송인으로서의 예절과 자긍심을 지키는 훈훈한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 허윤녕 기자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와 센터해지기 쉬운 계절!
 이대로 가을을 떠나 보낸다면 아쉬울 것 같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대전 지역별 여행지를 낱알이 파헤쳐보기! 자 모두 Follow me~

◆ 김동희 기자



【대청호 자연생태관】

대전광역시 동구 천개동로에 위치한 대청호 자연생태관은 전시실을 비롯한 아름다운 꽃들이 일 년 내내 우리를 반겨줘요. 입장료는 무료!
 향기로운 꽃향기를 맡으러 친구, 연인, 가족끼리 다녀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유림공원】

유림공원은 대전 유성구 봉명동 2-1번지에 위치해 있는데요. 연인, 가족과 맛있는 도시락을 싸들고 나들이 다녀오기에 너무 예쁜 곳이랍니다! 커다란 호수를 앉아서 가까이 구경할 수 있는 정자도 있는데요. 넓게 쪽 뻗은 멋진 유림공원으로 올 한 해가 가기 전에 유림공원으로 나들이 어떠세요?



【오월드】

대전광역시 중구 사정동에 위치한 대전 오월드는 대전 사람이라면 모를 수 없을 정도로 유명한 명소인데요. 떠나기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가격이나 할인 및 제휴카드 등 여러 가지 혜택들을 참고한다면 더욱 좋겠죠?



【계족산】

대전광역시 대덕구 장동에 위치한 계족산! 이곳에는 아주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하죠? 바로 황토 길입니다! 자연을 느끼며 맨발로 걸어도 좋고 신발을 신고 걸으셔도 좋습니다! 답답한 일상생활에서 떠나 휴식을 취하고 싶은 분! 다이어트를 결심한 분! 계족산에서 맑은 공기를 마시며 걷는 것만으로도 몸과 마음이 힐링되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대전 시립미술관】

대전광역시 서구 만년동에 위치한 대전 시립미술관은 이색적인 데이터 코스를 원하는 모든 연인과 가족, 학생 모두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다양한 예술작품도 만나고 미적 감각과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폐장시간은 때때로 다르니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나도 셰프다!

◆ 김애림 기자

손쉽게 만드는 이태리 요리 1

자취하는 학생들의 걱정거리 중 하나인 '오늘 뭐 먹지?' 밥을 해먹자니 밥반찬이 걱정되고, 게다가 요리만하면 산더미처럼 쌓여버리는 설거지까지... 이런 모든 걱정거리를 날려버릴 수 있는 레시피, 이름하야 원 팬 파스타! 간단해서 요리 왕초보 자취생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손쉽게 만드는 이태리 요리 2

레스토랑에서만 맛볼 수 있었던 피자! 이제는 집에서 만들어 보세요! 도우 반죽 No~ 오븐도 No~ 자취방에서 먹던 평범한 집밥은 이제 안녕! 초간단한 방법으로 이태리에서 우아한 식사를 하는 기분을 느끼러 Go!



복잡한 파스타는 이제 그만! 팬 하나로 만드는

원 팬 파스타



- 재료
 파스타 면 1인분
 양파 1/2개
 다진 마늘 1Tbs
 토마토소스 반 통
 비엔나소시지 한 줌
 방울토마토 3개
 물 500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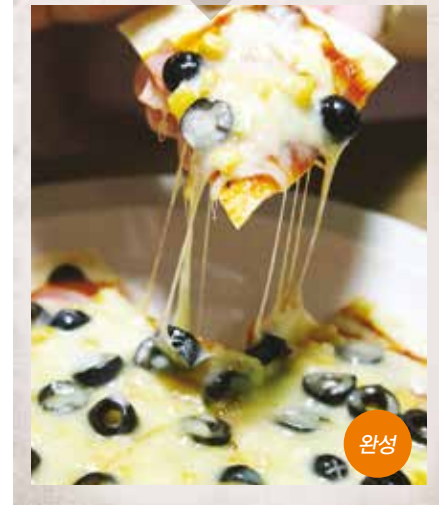
완성

얇은 도우와 간단한 조리법이 매력적인

또띠아 피자



- 재료
 P사 올☆☆
 피자 만들기
 (또띠아, 토마토소스,
 모짜렐라치즈)
 올리브 한 줌
 콘 옥수수 2스푼
 슬라이스 햄



완성



① 비엔나소시지를 어슷하게 썰고, 방울토마토는 반으로 잘라주세요.



② 양파를 얇게 채 썰어줍니다.



③ 파스타 면을 동전 오백 원 크기만큼 집어 (1인분) 프라이팬에 미리 준비해 둔 재료와 함께 투해!



④ 다진 마늘과 소스, 물을 넣어줍니다.



⑤ 보글보글 끓여서 토마토소스가 자작해질 때까지 잘 저어줍니다.



⑥ 돌돌 말아 접시에 담아주면 완성!



① 햄과 올리브를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세요.



② 올☆☆ 피자 만들기 세트에 동봉되어 있는 또띠아와 소스를 꺼냅니다



③ 또띠아를 접시에 놓고 소스 2스푼 반을 퍼 발라줍니다.



④ 소스를 바른 또띠아 위에 준비해 둔 재료를 보기 좋게 토핑해줍니다.



⑤ 햄과 야채 토핑이 올려진 또띠아 위에 피자치즈를 골고루 뿌려줍니다.



⑥ 전자레인지에 1분간 돌려줍니다.



수업 10분 전, 나를 도와줘!

◆ 김애림 기자

따르르릉! 헛! 지각이다! 한 적 많이 있지 않으신가요?
 전날 밤 친구와 기분 좋게 한 잔, 엄청난 과제 폭탄에, 밤에만 찾아오는 불면증!
 지각하는 이유도 가지가지! 그렇다고 자체휴강을 할 수도 없고, 초체하게 가기는 싫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늦잠 잤을 때 꿀 팁 아이템!



1 기름진 앞머리를 책임져 줄 이니스프리의 노세범 파우더
 머리 기름기(☆☆☆)
 신경 쓰이는 정수리와 앞머리에 톡톡!



2 노세범 파우더로는 힘든 기름짐을 책임져 줄 드라이 샴푸
 머리 기름기(☆☆☆) 정수리와 앞머리에 뿌리고 빗질해 주면 기름기가 잠잠!



3 염색으로 밝아진 머리 동동 뜨는 눈썹?! 아이브로우 펜슬과 아이브로우 마스크라
 머리색은 화려한데 눈썹만 칙칙할 순 없다!
 급하게 나온 티는 낼 수 없으니 등곳길에 빠르게 사삭



4 빨리 나오느라 고데기를 못했다?! 충전식 열 헤어롤
 보조배터리에 꽂고 잠시만 기다리면 후끈한 열이 나는 신기한 헤어롤!



5 아파 보이는 얼굴은 No! 생기 있는 입술을 책임져 줄 틴트



6 덜 마른 티셔츠, 귀퀴한 냄새를 감춰줄 향기로운 섬유 향수

지각의 위기에서 이미지도 포기할 수 없는 학생들을 위한 꿀 팁!
 도움이 되셨나요? 급박한 순간을 맞이한 학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요!

번외.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문자와 마스크가 진리지!



증명사진을 위한 3D 메이크업!

어느 때나 사진은 예쁘게 찍고 싶지 않나요?

특히 주민등록증, 자격증, 이력서 등등에 쓰이는 증명사진이라면 더욱욱!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화장한 듯 안한 듯, 하지만 뚜렷한 이목구비를 위한 증명사진 3D 메이크업,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1 기초를 끝낸 피부에 선크림을 발라줍니다.



2 커버력있는 쿠션 또는 파운데이션을 팡팡 두들겨 발라주세요.



3 눈두덩에 브라운계열의 베이지색 베이스 섀도우를 표시한 범위까지 발라줍니다.

Tip. 파운데이션 사용 전, 컨실러로 잡티를 먼저 가려주면 매끈한 도자기 피부 완성!



4 쌍꺼풀 라인까지 짙은 갈색의 섀도우를 발라줍니다.



5 아이라인으로 눈꼬리를 그려주세요. 그리고 뷰어로 속눈썹을 잡고 마스크라를 바릅니다.



6 또렷한 인상을 주기위해 눈썹 앞머리 부분을 음영을 넣듯 채워주고 얼굴형에 따라 어울리는 눈썹을 그려주세요. 마지막으로 아이브로우 마스크라로 자신의 헤어컬러와 색을 맞춰줍니다.



7 섀도우 브러쉬로 눈썹 앞머리에서 코 옆을 가볍게 쓸어주고 넓은 붓을 이용해 광대에서 턱까지 자연스럽게 셰이딩을 하여 얼굴을 가름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이마, 콧대, 콧방울, 턱에 하이라이터로 입체감을 더해준다면 금상첨화겠지요?



8 표시한 부분에 볼 터치 합니다. 눈꼬리와 코끝에서 수직·수평선을 그었을 때 만나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표시한 선처럼 브러쉬를 빠르게 동글러가며 얇게 볼터치를 해줍니다.



9 자연스럽게 촉촉해 보이는 틴트나 립글로스를 이용해 입술 안쪽부터 그라데이션하여 발라줍니다.



뚜렷한 이목구비와 깨끗한 피부를 강조한 증명사진 3D 메이크업!
 면접 시에도 적용해볼 수 있는 화장이랍니다.
 오늘도 예뻐지세요!

◆ 김애림 기자

DAILY DATE COURSE IN WOOSONG

◆ 허윤녕 기자

우송 맛집 지도

우송인의 추천 데/이/트 코스

- ▲ 스트레스 제로 놀이공간
- 향긋한 만남과 커피향
- 따뜻한 정과 음식 나누기



우송을 넘어 세계로 나아가는 배움!

❖ 유지예 · 하정인 기자



외식조리과 대만 연수기



지난 여름학기 말, 외식조리과에서 2016학년도 여름학기 메뉴 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경진대회에서 수상하면 해외 연수 기회가 주어진다고 했는데요. 치열했던 경쟁 끝에 서종완 학생과 고설현 학생이 우승을 거머쥐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2박 3일간의 값진 경험을 하고 온 서종완 학생을 만나보았습니다! 대만이야기, 같이 들어보실래요?

Q. 대만 연수 기간 동안의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저희는 대만 가오슝에 있는 국립가오슝대학교로 2박 3일 동안 연수를 다녀왔어요. 첫날에는 가오슝대학의 학생들과 함께 캠퍼스투어와 조리 실습실 투어 그리고 대만 식문화에 대한 이론 수업을 진행하였고, 밤에는 대만의 야시장 문화를 체험하였습니다. 다음날 오전에는 대만 전통음식에 대해서 배우며 함께 음식을 만들어 보았고, 오후에는 치진섬 투어와 해변을 구경하였습니다. 마지막 날은 대만 음식 조리실습을 하고 중화요리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Q. 이번 연수를 통해서 느낀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요리를 배우는 학생으로서 한 번쯤은 정식으로 중식을 배우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 제게 딱 맞는 기회가 찾아와 정말 기뻐요! 그곳에서 대만의 고구마 빵스와 비슷한 한국식 고구마 맛탕을 직접 소개하기도 했어요. 연수를 다녀오면서 우리나라의 중식과 만다린권 국가에서의 중식에 대한 차이점에 대하여 잘 알게 되었어요. 연수 후 학교 실습시간에 창작요리를 하면서 대만에서 배운 요리들을 응용한 음식 만들어 보기도 했고요. 대만에서의 연수는 저에게는 많은 것을 경험하고 깨닫게 해준 좋은 기회였습니다.



애완동물학부 일본 연수기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일본어경진대회! 많은 경쟁자들을 제치고 애완동물학부 이권준, 김보민, 양승훈, 이은주 학생이 최우수상에 입상하여 일본 연수의 기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이은주 학생과 일본 연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Q. 일본 연수 일정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주세요.

저희는 4박 5일간 일본 연수를 다녀왔는데요. 일본 효고현 고베시에 있는 로얄그루밍칼리지에서 실습을 했어요. 첫 날엔 고객 마케팅에 대한 강의 그리고 제한된 시간동안 트리밍을 끝낼 수 있는 기법에 대해 일본어로 수업이 이루어졌었어요. 둘째 날에는 일본인 학생들과 팀을 이루어 실습을 하였답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급인 가이유칸 수족관과 나라 도다이지와 나라 공원을 방문하여 동물관리에 대한 새로운 인지도 얻었고요. 게다가 일본에서 유명한 펫샵 '아미고'를 방문하여 애완동물 관련 상품 트렌드에 따라 유통되는 상품들이 다르다는 점도 확인하였습니다. 일본에서의 하루하루가 새로운 삶의 연속이어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Q. 연수를 다녀오면서 느낀 점이 있다면 말씀해주세요.

일단 한국에서 제가 알았던 애견미용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일본의 애견미용기술을 익힌 것이 가장 값진 소득이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일본인 친구도 사귀게 되어 앞으로도 서로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게다가 저는 일본 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어 일본 애완동물 산업 현장을 직접 확인한 것이 가장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번 더 가고 싶은 마음도 들고요.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하기 위해 일본어 공부를 해둔 것은 정말 잘한 일 같아요. 마침 일본어 경진대회가 열려 얼마나 감사한지요.

‘글로벌리더의 한 발짝! 홍콩 탐방기’

지난 1학기 말, 글로벌 시대에 발맞춘 인재를 발굴하고, 영어 활용 기회를 위하여 영어발표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경진대회에서 우승팀으로 선발되면 홍콩에 갈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쟁쟁한 팀들을 제치고 영예로운 대상을 수상한 글로벌호텔외식과, 외식조리과, 뷰티디자인학부 학생들은 홍콩으로 연수를 떠났습니다. 지금부터 생생하고 리얼한 홍콩 탐방기를 함께 하실래요?

❖ 유지예 · 하정인 · 이채원 기자



▶ 우선 영어경진대회 영예의 대상 글로벌호텔외식과! ‘Hong Kong Hotel Inspection & HKPU Hotel Management Department’ 연수를 다녀온 글로벌호텔외식과 최승희 학생의 탐방기부터 들어 보시죠!

Q. 해외연수에서의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오전에는 홍콩 아이콘호텔과 웨라톤호텔, 더 구룡호텔 인스펙션을 했고(호텔을 찾아다니면서 점검하는 활동을 인스펙션이라 해요). 오후에는 홍콩 유명 관광지를 여행하며 문화 탐방을 했습니다. 침사추이에 있는 5성급 호텔인 아이콘호텔은 자연친화적인 인테리어에 하버뷰가 보이는 객실, 하버뷰를 감상하며 수영할 수 있는 야외수영장, 28층에 있는 멋진 Above & Beyond 레스토랑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웨라톤호텔 역시 5성급 호텔로 위치도, 시설도 그리고 직원 친절도도 최고였어요. 야외수영장이나 룸컨디션도 좋았고요. 편리한 교통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한다는 더 구룡호텔, 4성급이고 2011년에 리모델링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깨끗하고 오래된 호텔이라는 느낌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어요.



Q. 해외연수를 통해 얻은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심적으로 매우 가까운 나라인데도 문화 차이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영어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어서 해외인턴도 무리 없이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 다음은 ‘Star Chef Intensive Course’ 연수를 다녀온 외식조리과 김유리 학생의 탐방기를 들어볼까요?

Q. 해외연수에서의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오전에는 중식과 홍콩식 중식의 차이점에 대해 강의를 들었고, 홍콩식 기본 소스 만들기 요리 실습, 홍콩식 제빵의 소 그리고 제과 만들기 실습을 하였어요. 오후에는 그 유명하다는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 Lung King Heen 에서 식사를 했어요. 구룡반도가 시원하게 보이는 뷰도 예술이었고, 홍콩-마카오 미슐랭 가이드가 발표된 이래 단 한번도 미슐랭 3스타를 놓친 적이 없으니 맛과 서비스도 정말 훌륭했어요.



Q. 해외연수를 통해 얻은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다양한 미각 여행은 물론이었고, 세상을 바라보는 견문도 넓어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중식과 중식을 하는 현장에서 중식을 배우는 것은 당연히 차이가 있겠죠. 매 순간이 즐거웠고 경험하는 모든 것로부터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미래를 선택할 때의 폭도 넓어진 거 같아요. 연수기간 내내 영어로만 의사소통을 해서 영어실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었어요. 연수 후에 영어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계기도 되었고요.



Q. 영어경진대회에 참여하거나 우승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주고 싶은 TIP!

우선 경진대회를 통해 해외 연수의 기회가 있다는 건 정말 매력적이에요. 단순히 언어나 문화 탐방 차원이 아니라 원하는 전공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게 의미가 있죠. 그러기 위해선 영어실력이 우선되어야 해요. 경진대회는 무엇보다 자신감이 중요한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발음할 수 있도록 연습에 연습을 거듭해서 누가봐도 매끄러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 같아요. 신선한 주제를 선정하는 것도 하나의 우승 비법이지요!

▶ ‘CMM Academy Intensive Course’를 다녀온 뷰티디자인학부 이소연 학생도 만나보았습니다.

Q. 해외연수에서의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홍콩에서 인정받는 CMM 뷰티 아카데미에서 단기코스 수업을 받았어요. 광둥어를 알아듣지 못하는 저희를 위해 영어 통역을 제공해주어 어려움 없이 수업에 임할 수 있었어요. 저희 세 명은 각자 헤어, 메이크업, 피부관리 전공으로 모두 달라서 모든 코스 수업을 함께 받았어요. 스킨케어 수업에서는 시술자와 모델이 필요해서 번갈아가며 역할을 했어요. 피부 수업 때는 피부 마사지, 속눈썹 염색하는 법 등을 배웠어요. 메이크업 수업은 새로운 기술도 많고, 우리나라에 비해 강하고 세련된 느낌의 메이크업을 선호해서 낯설긴 했지만 더 재미있는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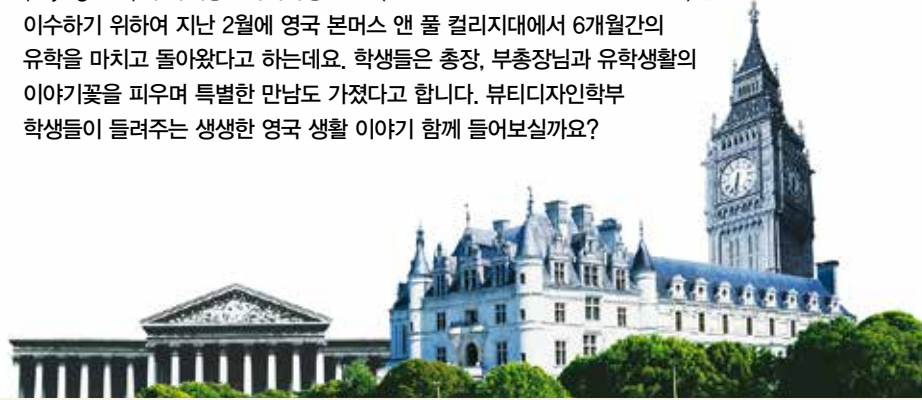
Q. 해외연수를 통해 얻은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처음 접하는 스타일의 헤어, 메이크업을 직접 경험해봐서 좋았어요. 한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강한 느낌이라 이전까지 시도해보지 못했던 색감과 디자인들을 시도해 봤어요. 더 노력해서 저만의 기술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여행을 갔다 오면 보는 눈이 넓어진다고 하잖아요.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말의 의미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뷰티디자인학부, 영국 유학을 다녀오다!

뷰티디자인학부 글로벌뷰티디자인코스 9명(이민욱, 김경서, 이수진, 김동현, 김응찬, 강훈구, 선제이, 오규섭, 손우균) 학생들은 영국 직업교육기관 (city&guilds)의 국제공인자격과정 'NVQ(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를 이수하기 위하여 지난 2월에 영국 본머스 앤 풀 컬리지에서 6개월간의 유학을 마치고 돌아왔다고 하는데, 학생들은 총장, 부총장님과 유학생활의 이야기꽃을 피우며 특별한 만남도 가졌다고 합니다. 뷰티디자인학부 학생들이 들려주는 생생한 영국 생활 이야기 함께 들어보실까요?



❖ 이채원 기자

Q. 뷰티디자인학부에서 글로벌뷰티디자인코스를 선택한 동기는 무엇인가요?

해외 취업을 목적으로 미리 다양한 경험을 해보고 싶었어요. 무엇보다 더 넓은 곳에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글로벌 코스를 전공하게 되었어요.

Q. 영국에 가기 위한 준비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영어 회화 향상을 목적으로 IELTS, 토익 시험 준비를 위해 글로벌뷰티디자인코스만 따로 원어민 수업을 진행했어요. 그리고 정규 수업이 끝난 후에도 늦게까지 남아 공부했고 개인적으로 부족한 부분은 학원을 다니면서 밤낮으로 매일 노력했습니다.

Q. 영국에서의 일정은 어떻게 진행되었나요?

영국에서의 학교 생활은 한국과 비슷했지만 조금 더 자유로운 방식으로 미용과 영어 수업을 받았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직접 살롱런던이라는 슝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거기서 저희가 실제 손님들을 시술 해주며 실습할 기회도 있었답니다.

Q. 영국유학을 통해 얻은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다양한 문화를 접하다보니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넓어진 것 같아요. 특히나 영어로 말하려고 하면 두려움이 앞서곤 했는데 외국인 친구와 말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신감도 생기고 부족했던 Listening과 Speaking 능력까지 많이 향상되었어요. 그리고 먼 타지에서 혼자 지내다보니 자립심과 책임감도 배울 수 있었답니다.

Q. 영국유학 중 힘들었던 점은 무엇이었나요?

가족과 장기간 떨어져서 지내야 했던 점과 의사소통이 잘되지 않아서 불편했어요.

Q. 한국과 영국의 수업내용에 차이점이 있었나요?

한국에서 헤어 배울 때는 펴를 강조했는데 영국에서는 자연 곱슬머리가 많아서 펴보다는 컬러를 강조했고, 피부미용 수업에서는 왁싱에 대해 보다 자세히 배운 것 같아요.

Q. 영국유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조언 한마디 해주세요!

의사소통으로 인한 불편함을 정말 절실히 느꼈기 때문에 영어공부를 많이 해서 왔으면 좋겠다고 조언해주고 싶어요.



영국유학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었던 학생들은 앞으로 각자 자신의 전공을 잘 다듬어 글로벌 명장이 되기 위해 한발 짝 나아갈 텐데요. 한국에서 나아가, 세계적 안목과 남다른 감각을 가진 최고 뷰티스페셜리스트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국제요리(제과) 경연대회를 힙시다!

지난 5월, 한식조리기능인협회에서 주최한 '대한민국 국제요리(제과)경연대회'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렸는데요. 학생뿐만 아니라 직장인들까지도 본 대회에 참가하여 그날 현장에는 엄청난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그 중 우송정보대학 식품영양조리학부의 1학년 이지나 학생이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더운요리 경연대회'와 '찬요리 경연대회' 종목에서 최고상인 금상을 수상하는 영광과 함께 총점 1등으로 대상의 영예까지 얻었습니다! 이번 대회의 우승을 힙سن 자랑스러운 우승인! 이지나 학생을 같이 만나러 가보실까요?

❖ 유지에 · 허윤녕 기자



식품영양조리학부 1학년 이지나

Q. 식품영양조리학부를 입학하게 된 동기는 무엇인가요?

저는 원래 음식을 만드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제가 워낙 꼼꼼한 성격인데다가 무엇을 하든 기초가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음식의 성분과 영양에 대해 차근차근 배우고 싶어서 식품영양조리학부에 지원하게 되었어요. 식품과 영양 그리고 다양한 조리실습도 하고 있어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Q. 이번 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했는데, 참가하게 된 계기와 소감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요리학원의 추천을 받아 한국조리기능인협회에서 국가대표로 선발되어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여러 관련 자격증들을 취득하고 다양한 대회에 참가하며 쉴 새 없이 연습하고 또 연습했어요. 누구보다도 많은 노력을 했기에 얻을 수 있었던 값진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항상 저를 응원해주는 가족들과 친구들, 교수님들께 감사드립니다.

Q. 경연대회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었나요?

대회에 지원한 전국 학생들 중 9명이 국가대표 팀으로 선발되어 한 팀을 이루고, 각각 3명씩 메인, 디저트 등 역할을 분담하여 미리 호흡을 맞춘 후 대회에 참가했어요. 먼저, 찬요리 경연대회에서 저희 팀은 여러 카테고리 중 Vegetarian, 메인, 코스요리를 만들었어요.

평가는 전시를 기준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진행된 더운요리 경연대회는 전날 미리 손질해 놓은 재료로 36인분의 음식을 팀원들과 함께 조리하고 현장에서 일반인에게 판매한 실적과 심사위원 5명의 시식 평가로 심사되었습니다.

Q. 대회를 진행하면서 힘들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대회를 준비하는 동안 학업을 병행해서 체력적으로 힘들었어요. 금요일에 학교 수업이 끝나면 바로 서울에 있는 요리학원에 가서 주말까지 밤샘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팀원들과 각자 다른 의견들을 조율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힘든 만큼 그에 따른 보상도 반드시 있다고 생각해요.

Q.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

졸업하고 우송대학교로 편입할 생각입니다.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여러 대회에 출전하고 그 후에는 세계적인 셰프로서, 제가 원하는 다이닝 레스토랑에서 다양한 경험과 실력을 쌓고 싶어요. 최종목표는 저와 같이 요리를 사랑하는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철로의 미래를 책임지는 자랑스러운 우송인! 김민수 기관사

❖ 김동희 기자

2015년 철도교통학부를 졸업하여 한국철도공사 성북 승무사업소에 승무사업소에 취업한 자랑스러운 우송인, 김민수 선배님은 현재 수도권 전동열차 1호선 기관사로 근무 중입니다. 진솔한 경험담을 바탕으로 후배들에게 아낌없는 조언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제가 직접 만나보았습니다.



그러다 기관사라는 꿈이 생기게 된 거죠. 처음으로 갖게 된 저의 목표였습니다. 그 뒤로 하루 일과는 항상 공부였습니다. 매일 학교 도서관에서 보이는 코레일 본사의 야경을 바라보며 "몇 년 뒤에는 저 건물에서 학교 야경을 보며 추억에 잠겨 있을 거야."하면서 속으로 굳게 다짐했었습니다. 그 결과 기관사 면허시험에서 전국 수석으로 합격하기도 하였고 여러 자격증들도 취득하면서 별 볼 일 없던 저도 기관사라는 꿈으로 하여금 세상을 향해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Q. 취업하기까지 많은 노력을 하셨을 것 같은데 공부하는 특별한 방법이 있었나요?

먼저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남들이 다 하는 거니까 나도 해야 돼."라는 자세보다는 입사 시 가산점이 되는 자격증이나 조건이 무엇인지 알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는 먼저 계획을 세운 후, 포스트잇에 하루하루 공부할 과목과 범위를 정해놓고 실천여부까지 O, X로 표시해가며 공부했습니다.

또한 책을 볼 때에는 큰 범위를 위주로 하여 관련 된 세세한 부분을 암기하는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반복학습이죠!

Q. 철도교통학부에서 철도운수를 전공하셨는데 특별히 그 전공을 선택 전공을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멋있어 보인다는 굉장히 단순한 이유로 철도교통학부에 입학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막상 학업에 집중하다보니 '기관사 한번 해보자'하는 목표가 생기게 되어서 여러 전공 중에 철도운수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생각보다 어렵긴 했지만 그만큼 자부심도 남달라요. 제가 한 선택이 정말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Q. 전반적인 학교생활은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공부보다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함께 어울리는 학교생활을 더 즐겼어요. 그러다 군대를 다녀와서 학업에 열정이 조금씩 생기고 서서히 철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Q. 학교 생활에서 아쉬웠던 점이 있나요?

친구들과 여행을 많이 다니지 못한 것이 아쉽습니다. 졸업하자마자 취업을 한데다가 기관사라는 직업 특성 상 공휴일도 근무하기 때문에 친구들과 시간 맞추기가 어려워져 좀처럼 기회가 나질 않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은 학교생활을 하며 친구들과 여행도 다니고 멋진 추억을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Q. '취업 전 학생들이 이걸 꼭 준비해야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세 가지만 말씀해주세요!

첫째는, 자신이 입사하고자 하는 기업의 채용방식에 대해 잘 알아야 합니다.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는 말처럼 상대를 잘 알아야 목표에 도달할 수 있겠죠? 자신이 원하는 기업에서 추구하는 인재상이 무엇인지, 입사시험이 있다면 시험 과목은 무엇인지, 그 기업의 최근 이슈는 무엇인지 등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입사지원 시 훨씬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두 번째로, 그 기업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취득하는 겁니다. 일단 전공 자격증 취득에 가장 많은 노력을 해야 하고 학기 중이나 방학기간에는 기본적인 IT자격증이나 어학관련 자격증들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취업박람회나 해당기업 채용설명회 같은 곳을 다녀보세요. 그 곳에서 기업의 향후 채용일정, 채용인원, 채용 방식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취업 준비 계획을 세울 때 많은 도움이 되며 옆에 있는 예비 지원자들 사이에서 자신의 위치가 어느 정도 인지도 가능해 볼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해당 인사팀 직원에게 직접 질의 할 수도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은 기회는 없다고 생각해요.

Q.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는 후배들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원하는 꿈을 성취하게 되기까지는 수많은 산을 넘어야 할 것입니다. 그 많은 산을 넘어 생각 하실 거예요. "이 길이 맞는 건가,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저 또한 그런 생각을 하며 지냈었습니다. 난생처음 기관사라는 목표는 생겼지만 철도기업의 문턱은 높아만 보이고 자신이 땅에 곤두박질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현재에 충실하세요! 아무생각 없이 현재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높아보였던 커다란 산의 정상도 어느새 내 발 밑에 있을 겁니다.

기관사를 꿈꾸는 많은 분들이 놓치는 것 중 하나가 철도차량 운전면허만 취득하면 끝나는 줄 아시는데 면허 취득 순간부터가 진짜 시작일 테니 절대 자만하지 마세요. 또 몇 번씩 입사시험에 떨어지게 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다 이루어집니다. "흐르는 강물을 잡을 수 없다면 바다가 되어 기다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강물은 결국 바다로 흘러들어오게 되어있죠. 지금 찾아온 기회를 놓쳤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그보다 더 큰 기회가 찾아오니깐요. 우송정보대학 후배님을 항상 응원합니다!



우리의 내일을 책임지는, 라운 하제!

◆ 김애림 기자

엄청난 열정과 패기가 가득했던 체육대회, 뜨거운 젊음의 열기로 화끈했던 축제... 도대체 '누가 준비하는 거지?'라는 생각 한 번쯤 해보시지 않으셨나요? 학생들의 즐겁고 보다 나은 학교생활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우송정보대학 32대 총학생회 임원들입니다!

지난 1학기 초, 예술회관에서 제32대 총학생회장 신호형 외 6명의 임원들을 위한 2016학년도 총학생회 출범식이 있었습니다. 정상직 총장님의 "리더의 기본소양을 배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 다른 사람을 이끄는 리더인 만큼 타의 모범이 되면서 우리 모두가 즐겁고 행복한 내일을 기대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총학생회와 학생들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격려의 말로써 32대 총학생회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이번 총학생회는 슬로건은 '라운 하제'인데요. 이는 '즐거운 내일'을 뜻하는 순우리말로, 학생들의 즐거운 내일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는 총학생회의 남다른 포부가 돋보이는 문구입니다!
항상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생들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는 총학생회!
학생들을 대표하는 학생회 임원들을 만나보았습니다.



Q. 학생회 임원이 된 계기가 무엇인가요?

부총회장 김가영 많은 학생들이 좀 더 편안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싶어서 총학생회 임원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다행히 저의 뜻을 함께 지지해주는 학우들이 있어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체육부장 정중훈 저는 1학년 때부터 체육부장을 보며 학생회 임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게 기회가 생겼고, 그건 바로 행운이었죠.

Q. 어떤 학교를 만들고 싶으신가요?

부총회장 김가영 저는 '정직한 학교, 깨끗한 학교'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총학생회가 투명해야함은 물론이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항상 노력하고 있어요.

여학생부장 황다영 학생이 학교의 주인인 만큼, 학생들 스스로 이끌어 갈 수 있는 학교로 만들고 싶습니다.



Q. 간부로서 힘든 점은 무엇인가요?

부총회장 김가영 변명이라면 변명이겠지만 학점관리가 힘들어요. 각종행사나 학생회 일로 인하여 강의에 출석하지 못하는 날이 많다보니 다른 학생들보다 조금 뒤쳐지는 느낌을 받아서 열심히 노력한 덕분에 학점은 잘 나오는 편입니다.

체육부장 정중훈 학교 행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학생들의 요구에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다보니 항상 고심하고 조정해야하는 부분들이 많아 조금 힘들 때가 많습니다.

Q. 학생의 입장으로 바라본 학교와 간부의 입장에서 바라본 학교,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여학생부장 황다영 학생일 때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무엇을 해주나 싶었는데, 간부가 되어 활동하다보니 학생들의 편의를 돌보고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체육부장 정중훈 저도 학생 신분일 때는 학교에 꽤 불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막상 일 해보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학교는 항상 여러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부장 김소현 학생일 땐 몰랐는데 간부가 되니 학교가 학생들의 뒤에서 많은 수고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Q.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앞으로도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임기가 끝날 때까지 학생회로서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잘 마무리해서 다음 총학생회에게 자리를 물려주고 싶습니다.

Q. 각오 한 마디!

부총회장 김가영 저희는 항상 실수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모두가 협심해서 문제를 해결해나갈 것입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의 입장에 서서 좋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여학생부장 황다영 앞으로 힘든 일이 많이 찾아오겠지만, 그런 시련으로 하여금 오늘의 내가 있다고 생각하며 즐거운 내일을 위해 오늘의 역경을 기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체육부장 정중훈 할 수 있다, 나는 한다, 하고 있다. 라는 마인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보부장 김소현 남은 학교생활 마무리 잘하고 졸업했으면 좋겠어요.

회장 신호형 내일은 없다. 파이팅!

'즐거운 내일'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총학생회!
그들의 열정과 노력이 있기에 오늘도 우송정보대학은 즐거운 내일을 바라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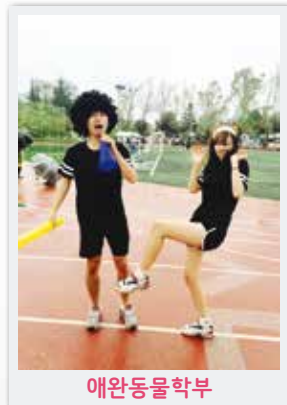


학보사의 소소한 이야기 학보사가 준비했다! 체육대회 속 작은 이벤트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우송체육대회 현장 속, 학보사에서 학생들을 위한 '체육대회 우승팀을 맞춰라!', '과티 예쁘게 입기' 등의 소소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많은 학생들이 행사에 참여해주어, 감사의 선물로 참여한 모든 분들께 작은 증정품도 챙겨드렸습니다~



학보사에서 진행한 '과티 예쁘게 입기'-SNS 사진 업로드 이벤트 당첨자입니다.
자칫 단조로울 수 있었던 과티를 자신의 개성에 맞게 입은 우송정보대의 패셔니스타들! 함께 보시죠!



애완동물학부

학부에 이름에 걸맞게 깜찍한 동물 귀 머리띠가 인상적이었습니다!



간호과

개성 있는 선글라스, 비가 오는 흐린 날씨에도 자체발광 귀여운 패션의 간호과 학생!



언어재활과

나는 패션왕! 요염한 포즈로 한껏 멋을 부린 언어재활과 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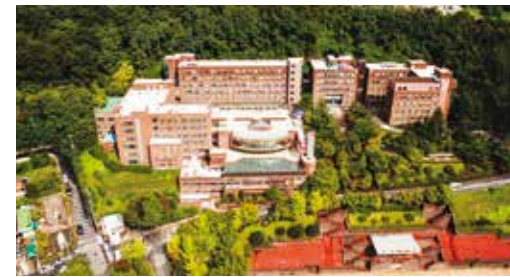
남다른 패션 센스로, 많은 인기를 얻은 세 명의 학생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증정했습니다!
뜨거운 관심과 참여로 이벤트를 성공적으로 만들어준 우송정보대 학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언론에 소개된 우송정보대학

'한국대표 명장' 양성하는 명문대학 성장

〈대전투데이〉 2016년 09월 07일



우송정보대학은 학생들의 취업 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교육환경과 국내외 우수기관과의 연계된 특성화 교육을 바탕으로 한국대표명장을 양성하는 명문대학으로 성장하고 있다.

2014년 외국인 교수진이 100% 영어로 강의하는 숭 인터내셔널 스쿨을 신설, 글로벌 명품 조리과, 글로벌제과제빵학부(글로벌제과제빵전공, 일본제과제빵전공), 글로벌호텔외식과, 글로벌실용음악과 등 4개 학과에서 국제화 교육에 주력하고 있다. 취업성공을 위한 산학맞춤형 교육, 실용학문 기반의 창의 특성화 프로그램, 해외취업 및 해외인턴십 글로벌 프로그램 등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키운 결과 고용노동부 및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국가공인 기술 훈련기관'과 '이공계 전문가 기술개발 서포터스' 사업 주관기관으로 연이어 선정되었다.

지난 4월에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공모한 '일학습병행제 듀얼공통훈련센터' 사업기관으로 최종 선정돼 6년간 최대 120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

우송정보대학, '실무경비' 가장 빨리 한국대표 명장 키운다

〈중도일보, 동아일보〉 2016년 08월 29일



우송정보대학(총장 정상직)은 글로벌 교육환경과 국내외 우수기관과의 연계된 특성화 교육을 바탕으로 한국대표명장을 양성하는 명문대학으로 성장하고 있다.

숭 인터내셔널 스쿨, 글로벌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성장-지난 2014년 신설된 '숭 인터내셔널 스쿨'은 전공분야 해외취업이 가능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글로벌명품조리과, 글로벌제과제빵학부(글로벌제과제빵전공, 일본제과제빵전공), 글로벌호텔외식과, 글로벌실용음악과 등 4개 학과가 운영되고 있다. 우수한 외국인 교수진이 100% 영어강의로 진행하며 영어·일본어·중국어 집중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해외 유명대학 교육과정과 연계하고 해외 인턴십·해외취업·해외복수취업을 운영하며 전공과 언어 실력을 겸비한 인재를 길러내고 있다.

우송정보대학, 중국인 유학생 입학식 실시

〈MBS, 금강일보, 아시아뉴스통신, 대전투데이〉 2016년 08월 31일



우송정보대학(총장 정상직)은 8월 30일(화) 오전 11:30분에 우송관 4층 대회의실에서 남경특수교육직업기술대학, 마안신사범고등전문대학과 정강산대학교에서 '2+1' 협약으로 편입학 온 유학생과 남경금릉직업중등전문학교에서 '3+2' 협약으로 신입학한 유학생의 입학식을 실시하였다.

이날 입학식에는 우송정보대학 정상직 총장을 비롯 교무위원과 유아교육과 학과장, 호텔관광과 학과장, 간호과 학과장, 심마스터·유통경영과 학과장, 중국교류실시장 및 지도 교수 등이 참석하여 중국인 유학생을 축하해주었다.

남경특수교육직업기술대학, 마안신사범고등전문대학, 정강산대학교에서 2년간 전공수업과 한국어를 공부한 유학생 26명과 남경금릉직업중등전문학교에서 신입학한 학생 4명 등 총 30명이 이날 입학식을 하였으며 우송정보대학에서 1년간 학과전공에 대한 준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송정보대학, 일본 오사카산업대학교와 교육협약 체결

〈MBS, 뉴스스, 대전투데이, 뉴1 코리아, 중도일보〉 2016년 07월 22일



- 호텔·관광·조리계열 졸업생 오사카산업대학교 경제학부 편입 기회 열려 -

우송정보대학(총장 정상직)은 지난 5월 16일 일본 오사카산업대학교와 교육협약을 체결하였다. 양 대학교는 두 대학의 학술 및 교육교류를 위해 학생교류, 교직원 교류, 공동 연구, 학술 정보 교환 등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기로 세부적으로 약속했다.

특히 우송정보대학 호텔·관광·조리계열과 오사카산업대학교 경제학부는 협약에 따라 우송정보대학 졸업생이 오사카산업대학교 경제학부에 3학년 편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1년에 10여명까지 편입할 수 있으며 일본어 능력시험(JLPT) N2 또는 JPT 550점 이상 취득한 학생에 한하여 총정이나 학부장 추천에 따라 편입할 자격을 얻을 수 있다. 편입생에게는 입학금 면제, 수업료 감면 등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될 예정이며 졸업생은 학사학위도 수여된다. 이번 두 학교의 교육협약 체결로 우송정보대학은 한국대표명장을 키우는 명문대학, 글로벌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대학으로 한걸음 더 발돋움하게 되었다.



우송정보대학, 벤처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대전투데이〉 2016년 07월 24일



우송정보대학(총장 정상직)은 21일 오후 2시, 테크노디자인센터 시청각실 및 전시실에서 '우송정보대학 벤처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했다.

우송정보대학 벤처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는 우송정보대학이 주관하여 청년창업 분위기를 조성, 학생들의 창업 의식 고취, 아이디어의 사업화 방안을 목적으로 2014년부터 시작하였다. 총 18팀이 참가하였으며, 매직카펫, 생투게이트, 코맹, 솔로몬, Beauty-up people, NSF프로젝트, 폴리커스, 라운, 아키크래프트 등 9팀이 최종발표에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전문대 한식경연 우송정보대·대림대 대상 수상

〈한국일보〉 2016년 06월 30일



충남 천안 백석문화대(총장 김영식)에서 30일 열린 '2016년 전문대 한식대림 경연대회'에서 우송정보대와 대림대 팀이 대상을 수상했다.

대회에는 전국 25개 전문대 조리 관련학과 재학생들이 팀을 이뤄 참가해 팀 별로 한식메뉴 2품을 출품, 경연을 벌였다. 심사는 된장과 간장, 고추장 등 우리나라의 정을 사용해 현대적 감각을 표현하고 한식의 우수성과 창의성을 보여주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에 수상한 대상 등 5개 팀은 오는 10월 미국 뉴욕중앙사관과 공동 개최하는 한식홍보 행사에 참여해 새로운 한식 메뉴를 선보인다.

대회를 유치한 백석문화대 김영식 총장은 "전국에서 가장 최신설비를 갖춘 '글로벌 식당'이 글로벌 세트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도전의 장이 되어 기쁘다"며 "지속적으로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우송정보대학, 2016학년도 외국인유학생 졸업식 실시

〈아시아뉴스통신〉 2016년 06월 14일



13일 우송정보대학은 우송관 3층 회의실에서 호텔관광학부 외국인 유학생 32명의 졸업식을 실시했다. 이날 정상직 우송정보대 총장은 졸업 축하사에서 "행복이라는 두 글자를 가슴속에 각인하고 졸업하는 유학생들이 대견하다"며 "앞으로 한·중 양국의 발전을 위해 이바지 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졸업생 32명 중 27명은 우송대학교 3학년으로 편입할 예정이다.

우송정보대학 간호과 제 6회 나이팅게일 선서식

〈대전투데이〉 2016년 05월 26일



우송정보대학(총장 정상직) 간호과는 5월 25일 오후 2시 우송도서관 소강당에서 학교법인 우송학원 김성경 이사장과 정상직 총장, 이현주 부총장, 우송대학교 존앤디크 총장, 대전광역시 간호사회 송용숙 회장, 학생, 학부보, 내과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6회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개최했다.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임상실습을 나가기 전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간호 정신을 분반아 일생을 전로 간호사로서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는 행사이다. 간호과 2학년 남학생 39명, 여학생 41명 총 80명은 촛불을 밝히고 '일생을 의롭게 살며 환자들에게 사랑의 실천과 봉사를 다 하겠다'고 서약하였다.

간호과는 1년 4학기제 및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운영으로 면학분위기를 조성, 실제 병원 환경과 유사한 '술 হাস피탈(Sol-Hospital)'에서의 실습 교육을 통해 전문 간호사 육성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2015년 상반기 간호교육인증평가에서는 전문학사 프로그램 중 유일하게 5년 인증을 받아 우송정보대학 간호과의 교육과정과 교육성과, 교육 여건 등에 대해 우수한 수준임을 공식 확인 받기도 하였다.

이날 선서식에서 정상직 총장은 "전문직 간호사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배움을 게을리 하지 않고 신체적 고통 뿐 아니라 정신적 아픔도 치유해줄 수 있는 가슴이 따뜻한 간호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하였다.

우송정보대학, '일학습병행제 협약기업 간담회' 개최

〈대전투데이〉 2016년 10월 03일



우송정보대학 산학협력단(단장 우경환)은 지난 28일 수요일 오후 3시 산학협력관 회의실에서 '일학습병행제' 협약기업 간담회 60개소를 대상으로 하반기 간담회 및 일학습 네트워크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우송정보대학은 지난 4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일학습병행제' '일학습병행제' 사업기관으로 선정 되었으며, 현재 ㈜정조는 SF, ㈜오름자동차, ㈜푸른환경, 금성노인요양병원, 대전오양원 등을 비롯해 총 62개 기업, 200여명의 학습근로자가 참여하고있다.

우경환 단장은 협약기업간담회를 통해 "일학습병행제는 학벌이 아닌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한 매우 효과적인 제도라고 생각하며 대학과 기업이 소통하고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참여기업과 원활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며 상호 협력해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에 대한 지원은 훈련비·훈련수당과 기업현장교사·행정담당자 수당,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도 간접 지원한다. 또한 기업에서 필요한 인력에 대해서는 관내 고용노동부 대전고용센터, 대전광역시청 취업지원센터, 협약기관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인력채용 지원을 받게 된다. 따라서 금년에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의 학습근로자인원은 300명을 넘을 것으로 보이며, 우리지역의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와 근로자 직무능력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일학습병행제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우송정보대학 '일학습병행제' 센터로 문의(042-629-6945, 6946)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천안업성고등학교와 자매결연 협약 체결

〈충청투데이〉 2016년 07월 7일



우송정보대(총장 정상직)는 6일 천안업성고(교장 이문희)와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에는 △대학 교육 시설 및 기자재 사용 △학생 특기·적성교육 지원 △학술 및 교육·연구·봉사에 대한 공동 활동 적극 지원 △대학 연수과정 교사 참여 시 우대 △입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이 포함됐다.

한편 우송정보대는 올해 신입생부터 천안업성고 당해연도 졸업생이 우송정보대에 신입학할 경우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 정상직 우송정보대 총장은 "이번 자매결연을 통해 우송정보대와 천안업성고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재양성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동산고등학교와 자매결연 협약 체결

〈금강일보〉 2016년 06월 22일



우송정보대(총장 정상직)와 대전동산고등학교(교장 오현일)는 21일 인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한 인재 양성을 골자로 하는 자매결연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는 △대학 교육시설 및 기자재 사용 △학생들의 특기·적성교육 지원 △각종 학술 지원 및 교육·연구·봉사에 대한 공동 활동 지원 △대학에서 실시하는 각종 연수과정 교사 참여 시 우대 △입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등이 포함돼 있다. 또 2017학년도부터 대전동산고 당해연도 졸업생이 우송정보대학 신입생으로 입학하게 되면 소정의 장학금을 지급받는 혜택을 받게 된다.

오 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특성화학과가 많은 우송정보대학과의 교류를 보다 확대하게 됨으로써 우송정보대를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장학 혜택과 다양한 전공 체험의 기회가 부여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신탄진중학교·대전이문고등학교와 자매결연 협약 체결

〈중도일보〉 2016년 05월 31일



우송정보대는 31일 대전이문고와 신탄진중과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다양한 교육 분야 프로그램 개발 ▲중·고등교육 연계 바탕 진로 프로그램 활동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 교류 ▲상호 기관 교육발전을 위한 인력·장비·시설 공동 활용 등이다.

정상직 총장은 "학생들의 학습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세 학교가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우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만들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신용 신탄진중 교장은 "학생들이 중·고교·대학에 이르는 연계교육을 직접 경험함으로써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확립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우송정보대학, '일학습병행제' 교육훈련 듀얼공동훈련센터 개소

〈MBS〉 2016년 03월 24일



우송정보대(총장 정상직)는 23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지정하는 일학습병행제 '듀얼공동훈련센터'에 선정됐다. 일학습병행제는 실무에 맞는 인재양성을 위한 제도로 능력중심사회를 구현하려는 국정과제이다. 입학에 배워서 기업과 근로자에게 모두 유익한 시스템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이주관)하는 대표적 사업이다. 지정된 듀얼공동훈련센터는 국가직무표준(NCS)을 기반으로 기업 신입직원의 직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참여기업의 모집과 지원, 현장 훈련의 담당, 평가 및 평가지원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우경환 산학협력단장은 "이번 듀얼공동훈련센터 선정은 그동안 우리대학이 창의적 실용교육과 활발한 산학협력을 위해 노력해온 성과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라고 생각한다. 더욱 노력하여 우수센터가 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국내외우수기업들과의 취업약정 프로그램으로 가장 빨리 [명장]을 키우는 대학

신입생이
되면

신입사원이
된다



Sol
International
School

• 글로벌명품조리과

해외 현장실습(인턴십)기관 : 신라호텔(중국),
캠펜스키호텔(독일), 그로스버너(두바이) 등

• 글로벌호텔외식과

호주 ICHM대학과의 복수학위
프로그램으로 호주 학사학위 취득

• 글로벌제과제빵학부

프랑스 INBP 및 폴보퀴즈와의 단기
교육프로그램 연계 및 국제자격증 취득

• 글로벌실용음악과

일본 소비대학과의 복수학위(2+2) 운영

WSU 우송정보대학
WOOSONG COLLEGE